

정 영 선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국제적 다가(茶家)로서의 이상적(李尙迪) 연구

2005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예절다도학 전공

김 현 정

# 국제적 다가(茶家)로서의 이상적(李尙迪) 연구

정 영 선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예절다도학 전공

김 현 정

# 인 준 서

김현정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2004년 12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 論 文 概 要

우선(藕船) 이상적(李尙迪, 1803~1865)은 중인(中人) 출신의 역관으로서, 12차례나 연행(燕行)에 참가하면서 100여명이 넘는 중국 문사들과 폭넓은 교류를 하여 중국의 음다문화를 체득하였다. 또한 국내의 문사대인(文士茶人)들과의 교류도 친밀하였다.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의 문하로서 자하(紫霞) 신위(申緯, 1769~1847), 유산(酉山) 정학연(丁學淵, 1783~1859), 해거(海居) 홍현주(洪顯周, 1793~1865) 등과 직접 사귀었고 실학 사상에 기초한 사실주의 문학과 금석학, 고증학에 조예가 깊었다. 이 과정에서 국내의 학자들과 청(淸)의 학자들 간에 학문과 다문화(茶文化) 교류에 교량적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조선 후기 다문화(茶文化)가 중흥되던 시기의 인물인 그는 다(茶)에 관한 시문(詩文)을 40여편 이상 남겼으며 국제 다문화 교류자로서의 큰 축을 담당했다.

이상적(李尙迪)이 쓴 다시문(茶詩文)을 살펴보면 ‘녹차(綠茶)’, ‘용단승설(龍團勝雪)’, ‘승설(勝雪)’, ‘백산차(白山茶)’, ‘죽로(竹露)’, ‘무이차(武夷茶)’, ‘강남어차(江南御茶)’, ‘부사산차(富士山茶)’, ‘송차(淞茶)’, ‘녹설아(綠雪芽)’를 마신 기록이 있다. 이 중 ‘용단승설’, ‘무이차’, ‘강남어차’, ‘송차’, ‘녹설아’는 중국차이고 ‘부사산차’는 일본차이다. 청의 접암(蝶菴) 장대(張垲)로부터 백자 향아리에 봉해진 ‘녹설아(綠雪芽)’를 선물 받았고 그의 문인 소당(小棠) 김석준(金奭準)으로부터 일본산 다호(茶壺)인 ‘자호(瓷壺)’를 선물 받았다. 이것으로 보아 폭넓은 국제 교류를 통한 그의 음다문화 체득의 일면을 알 수 있다.

특히 『다경(茶經)』을 읽은 기록과 고려의 옛답에서 발견한 ‘용단승설(龍團勝雪)’을 기록한 글에서 그의 다가(茶家)로서의 연구하는 자세와 청의 고증학의 영향을 받아 실증적인 그의 학풍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청인(淸人) 완문달(阮文達)의 생일에 축하 다례(茶禮)를 올리고 또 청인(淸人)인 중원(仲遠)의 사후(死後) 생일에도 다례를 올린 기록이 있다.

그가 행한 다사(茶事)를 살펴보면 차 끓일 물로 '중령수(中冷水)'와 '설수(雪水)' 그리고 '석천(石泉)'을 썼고, 차를 끓일 때의 용어로는 '약(瀹)', '전(煎)', '팽(烹)', '자(煮)'를 사용하였으며, 다구(茶具)로는 차냄비인 '다요(茶銚)', '석요(石銚)', 그리고 찻잔인 '완(盃)'과 '완(椀)' 또 화로는 '소로(小鑪)', '죽로(竹鑪)'를 사용하였다. 또 그의 다시문(茶詩文)에는 '학'과 '거문고'도 언급되어 있으며, 다석화(茶席花)로 '매화(梅花)', '수선화(水仙花)'가 사용되었다.

그의 음다 생활은 검소하면서도 철학적이었고 다도(茶道)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 있었다.

이상적(李尙迪)의 큰 업적은 올바른 지식의 바탕 위에 한·중 다문화(茶文化) 교류에 교량적 역할을 한 점이다.

# 目 次

## 論 文 概 要

I. 緒論 .....	1
II. 李尙迪의 生涯와 交遊 .....	5
1. 時代的 背景 .....	5
2. 譯官의 地位 .....	7
3. 譯官으로서의 生涯와 業績 .....	9
4. 朝鮮과 淸에서의 人間적 交遊 .....	13
III. 茶家로서의 李尙迪 .....	18
1. 《恩誦堂集》에 나타난 茶詩文 .....	18
2. 국제적 飲茶文化의 체득 .....	19
3. 茶事와 茶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실행 .....	25
4. 《恩誦堂集》에 나타난 茶道文化  관련 용어 .....	39
IV.  국내 茶人들과의 文化的 交遊 .....	43
1. 紫霞 申緯와의 交遊 .....	43
2. 秋史 金正喜와의 交遊 .....	46
3. 海居 洪顯周와의 交遊 .....	55

V. 結 論 .....59

參 考 文 獻

ABSTRACT

## 表 目 次

<표 1> 이상적의 연행시기와 목적 .....	12
---------------------------	----

# I. 緒 論

차(茶)는 우리의 전통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1300여년 역사에 빛나는 전통다도의 창조적인 계승, 발전을 위해서는 전통다도에 관한 문헌, 유물, 구전(口傳) 등을 넓고 깊게 수집하고 현대의 생활문화에 절충, 융합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본고(本稿)는 19세기에 활동했던 중인(中人) 출신의 역관(譯官) 우선(藕船) 이상적(李尙迪, 1803~1865)의 다가(茶家)로서의 면모를 그의 저서인 《은송당집(恩誦堂集)》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간의 연구가 사대부(士大夫)에 치중했고 중인(中人)으로서의 다인(茶人)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던 바, 이상적(李尙迪)의 《은송당집(恩誦堂集)》을 고찰해 봄으로써 전통 다도의 연구에 부족하나마 일조를 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는 중국에 비하여 다서(茶書)는 적은 반면 다시(茶詩)가 많다는 것이 우리의 강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상적(李尙迪)은 그의 문집 《은송당집(恩誦堂集)》에서 700여편의 시와 37편의 문장을 남겼는데 이 중 다(茶)에 관한 시문(詩文)을 40여편 이상 남겼다.

우리 나라는 7세기에 음다풍속이 생겨난 이래 고려 시대에는 더욱 번성하였다가 조선 시대에 와서 조금 쇠퇴하였으나 선비들과 승려들에 의하여 그 맥을 유지해 오다가 근대에 이르러 차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현재까지 향유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한국 전통 생활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본고는 19세기에 활동했던 역관출신(譯官出身)의 시인, 우선(藕船) 이상적(李尙迪, 1804~1865)의 문집인 《은송당집(恩誦堂集)》에서 보여지는 국내와 국외를

망라한 그의 교유를 살펴보고 또 《은송당집(恩誦堂集)》에 실린 차(茶)에 관한 시(詩)와 문(文)을 고찰해봄으로써 다인(茶人)이자 다문화교류자(茶文化交流者)로서의 이상적(李尙迪)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그의 시대는 극심한 사회 혼란기로서 안으로는 세도정치(勢道政治)의 폐단이 있었고 천주교의 전래로 인하여 사회는 극도의 불안과 혼미 속에 빠져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이상적(李尙迪)은 역관(譯官)의 신분으로 중국을 12차례나 연행(燕行)하였다. 여러 차례의 연행으로 당대(當代)의 문인학자(文人學者)들과 교유하는 가운데 시(詩)·서(書)·화(畫) 및 금석분야(金石分野)에 조예가 깊어졌다.

그의 사회적 지위가 보잘 것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문장으로 인하여 한국과 중국의 많은 문사(文士)들과의 절친한 교유가 있었다.

조선 전기와 중기에는 사대부(士大夫) 이외의 문학은 생각할 수 없었으나 조선 후기에는 위향문학(委巷文學)이 발달하여 사대부문학(士大夫文學)과는 궤(軌)를 달리하면서 문학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이상적(李尙迪)은 역관사(譯官四家; 滄浪 洪世泰(1653~1725), 虞裳 李彦瑱(1740~1766), 夏園 鄭芝潤(1808~1858), 藕船 李尙迪(1804~1865))중의 한 사람으로 19세기 후반 중인문학(中人文學)의 총결산자로서의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다.<sup>1)</sup>

이상적(李尙迪)은 《국조보감(國朝寶鑑)》의 교간(校刊)에 참여하고, 시문(詩文)에 있어서 헌종(憲宗, 재위 1834~1849)이 읊고 찬탄할 정도로 인정을 받았다. 그의 명성은 청나라에 먼저 알려졌고, 그의 문집(文集) 《은송당집(恩誦堂集)》은 1848년 청의 오찬(吳贊)에 의해 청에서 간행되었다. 이것은 그들이 이상적의 인물됨과 문물교류에 끼친 공로, 그리고 그의 작품이 보여주는 뛰어난 시재를 그대로 두기가 아까워서였다. 주달(周達)은 중국에도 많지 않은 책이라고 호평했으며<sup>2)</sup> 빙예기(騁譽驥)는 우선(藕船)의 문집을 빌어 읽고 그를 깊이 경모했다 한다.<sup>3)</sup>

1) 이용희, 「李尙迪의 詩文學 研究」,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p.1.

2) 李尙迪, 『恩誦堂集』 續集 文卷二, p.240. <書周菊人達手札後>

《은송당집(恩誦堂集)》이란 명칭은, 임금께서 그의 시를 읊고 감탄한 일에 대한 감사의 뜻에서 붙인 것이다. 여기서 자신의 작품이 사대부의 그것에 뒤쳐지지 않는다는 이상적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다. 더구나 그의 작품을 대궐에서 간행하려 하였을 정도였으니 그의 문학의 높은 경지를 짐작하게 한다. 이 때 그가 굳이 이를 사양한 것은 겸사의 말이라기 보다는 사대부의 질시에 찬 눈초리를 피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으니 조선시대의 신분적 차별의 극심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은송당집(恩誦堂集)》의 제침(題簽)과 서(序), 발(跋)은 모두 중국 당대의 최고 지식인들이 그의 문집 출간을 기려 보내준 것들이다.

또 이상적이 청의 문사들과 주고받은 서찰을 모아 발간한 《해린척소(海隣尺素)》에는 당시 문단을 주름잡던 장요손, 유희해 등 39인의 척독이 실려 있다.

그리고, 이상적(李尙迪)의 문인(門人) 소당(小棠) 김석준(金奭準, 1831~1915)이 스승의 작품 가운데 우수한 작품만 선별하여 편집한 책인 《우선정화록(藕船精華錄)》이 있다.

《은송당집(恩誦堂集)》은 1848년 경 중국의 북경에서 초간(初刊)한 본집(本集) 12권(詩 10권, 文 2권), 1864년 경 북경에서 간행한 속집(續集) 12권(詩 10권, 文 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권(詩卷)은 연도순으로 맞춰 엮어졌다. 본고(本稿)는 2003년 발간된 민족문화추진회의 『한국문집총간(韓國文集叢刊)』 312輯을 참고하여 쓰여졌다. 『한국문집총간(韓國文集叢刊)』 312輯의 영인저본(影印底本)은 서울대 규장각장본(奎章閣藏本)이다.

본 논문 제목의 ‘다가(茶家)’라 함은 장원(張源)의 《다록(茶錄)》<sup>4)</sup>에서 인용한

---

편의상 이후의 각주에서 『恩誦堂集』의 page 표기는 (민족문화추진회 편, 『韓國文集叢刊』 312輯,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3)의 page임을 밝혀둔다.

3) 李尙迪, 『恩誦堂集』 續集 詩卷七, p.287. <題朴清珊韓齋贈別詩冊>

4) 초의 원저, 정영선 편역, 『동다송』, 「茶錄」, 서울: 너럭바위, 1999, p.94. <火候> …皆不足於中和 非茶家要旨也

용어로서 '전문적으로 차를 잘 끓이는 사람, 혹은 다도의 계통을 이룬 사람'의 뜻이다. 이 '다가(茶家)'라는 용어가 《다신전(茶神傳)》 한국불교전서본<sup>5)</sup>에는 '팽가(烹家)'라고 표기되어 있다.

지금까지 이상적(李尙迪)에 관한 연구는 8편 정도 있으나<sup>6)</sup> 대부분 시문학(詩文學)의 분석 연구였다. 본고(本稿)에서는 이상적이 살던 19세기에 음다풍속이 상당히 성하였고 그가 중국의 명사들과 국내의 유명한 다인(茶人)들과도 교류했던 점을 중시하여 《은송당집(恩誦堂集)》에 나타난 다문화(茶文化)와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명하면서 국제적 다문화 교류와 다가(茶家)로서의 면모를 고찰하고자 한다.

---

5) 초의 원저, 정영선 편역, 전개서, 「茶神傳」, p.123. <火候> …皆不足於中和 非烹家要旨也

6) 정후수, 「李尙迪論」,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83;

김진생, 「藕船 李尙迪 詩 研究」,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85;

김충제, 「藕船 李尙迪의 詩世界 研究」,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1987;

정후수, 「李尙迪詩文學研究」,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88;

이영숙, 「李尙迪 詩文學 研究」,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991;

한원경, 「李尙迪의 詩에 나타난 現實認識과 表現特性」,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1991;

이준희, 「藕船 李尙迪의 中國體驗 漢詩研究」,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1999;

이용희, 「李尙迪의 詩文學 研究」,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본 논문을 준비하고자 했을 때 이상적의 시의 전반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특히 '다(茶)'와 관련된 시는 번역이 지극히 적었으므로 『은송당집(恩誦堂集)』의 번역은 영가문화사(永嘉文化社) 김희동(金禧東)선생님의 도움을 크게 받았음을 밝힌다.

## II. 李尙迪의 生涯와 交遊

### 1. 時代的 背景

이상적(李尙迪)은 중인 출신의 역관이며 생존 연대는 순조(純祖) 3년(1803)~고종(高宗) 2년(1865)으로 순조(純祖)·헌종(憲宗)·철종(哲宗)·고종(高宗) 등 4대(代)를 잇는다.

조선사회는 크게 볼 때 양반을 지배계층으로 하는 사회였다.

이러한 신분제 사회는 임병양란(壬丙兩亂)을 겪은 후부터 차츰 토대가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세기 무렵에 이르면 신분의 상승과 몰락이 두드러져 양반의 지배계층으로서의 위치는 예전처럼 확고한 상태로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다. 양반의 신분적 몰락이란 사대부로서 행세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한다. 그렇게 된 이유는 양반의 전체적인 숫자는 증가한 반면 관직의 수는 큰 변동이 없었기 때문이다.<sup>7)</sup> 또 다른 이유는 세도 정치가 정국을 좌우하게 되면서 척족(戚族)에 의한 정권의 행사가 일부 양반층에게만 독점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정권으로부터 배척된 많은 양반들은 지방으로 낙향하여 향족(鄕族)이나 잔반(殘班)으로 전락하였다. 이들은 초기에는 서원(書院)이나 향교(鄕校)를 중심으로 학문연구와 재기의 가능성 구축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몇 대를 이어 관직에 진출하지 못한 양반 중에는 소작농이 되는 경우도 생겼는데 이들이 바로 몰락양반층이라는 집단이 되었다.

반면에 평민과 노비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부(富)를 축적하여 어떤 경로로든 양반의 지위를 획득한 경우가 허다했다. 이들은 상업자본의 발달, 농업기술의 혁신

7) 이현희. 『韓國史總論』, 서울: 일신사, 1980, p.199.

등으로 광농자작(廣農自作)을 하는 사람들로써 양반에게 부여되었던 면역(免役)의 혜택과 지위를 얻기 위하여 족보를 위조한다거나 변조하기도 하고 또는 몰락 양반과 혼인을 맺기도 하였다.<sup>8)</sup>

이처럼 양반층의 형세가 다극화되는 한편 서얼차대가 완화되고 중인들도 그 지위가, 그들의 지적 우세 때문이든 부의 축적 때문이든, 정치적, 사회적 역할이 강화되어 갔는데 그 중에도 역관은 직업상 부를 축적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에 놓여 있었다.<sup>9)</sup>

이상적이 출생하기 이전(以前)은 영조(英祖), 정조(正祖) 조(朝)로 정치, 경제, 사회 등 국가 전반에 걸친 혼란에서 벗어나 일시적인 안정기를 맞았던 시기였다.

그러나 이상적(李尙迪)의 출생을 전후해서는 내우(內憂)와 외환(外患)이 함께 겹쳤던 난세(亂世)였다. 세도 정치와 민란의 발생, 과거제의 폐단으로 인한 각종 혼란과 모순이 내우(內憂)의 문제였다면, 서학(西學)의 전래와 서구열강의 문호개방 요구는 외환(外患)의 문제였다.

정조대(正朝代)에 이르러 일부 지식인층은 종래의 주자학적(朱子學的) 연구태도를 버리고, 천주교를 신앙으로 선택하여 하나의 정치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사상의 유입은 단순한 공리공론식(空理空論式)의 학풍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학문을 요구하게 되고, 그 동안의 매년 연행사절(燕行使節)로 외교관계가 열려 있었던 청(淸)은 더 한층 우리 문화계에 커다란 변혁을 일으키게 된다.

당시 청(淸)은 강희(康熙), 건륭(乾隆)의 시기를 거쳐 문화의 황금기의 여파가 어느 정도는 이어지고 있던 시기였고, 학문의 경향은 박학(樸學)으로 주관적 명상(冥想)을 반대하고 실사구시적(實事求是的) 고찰(考察)을 주장하였으며 공론(空論)을 배척하고 실천(實踐)을 제창하는 것으로 새로운 학술발전을 모색하고 있었

---

8) 이현희, 전계서, p.210.

9) 정후수, 「이상적시문학연구」, p.25.

다.

이러한 시기에 그곳에 들르게 된 조선(朝鮮)의 사절단은 이전의 감정적(感情的)인 '대명의리(大明義理)'나 '이적(夷狄)'의 관념에서 벗어나 보다 실리(實利)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실학의 기운은 더욱 고조된다.<sup>10)</sup> 그래서 이들 사절(使節)들은 그곳의 우수한 문물들을 확인함은 물론 청의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청의 학술사상(學術思想)을 익히는 한편 각종 서적(書籍)을 들여오므로써 우리의 문화계에도 그 영향이 미치게 되었다.

이상적(李尙迪)은 백성들의 궁핍한 생활상과 부패한 관리들의 가렴주구(苛斂誅求) 및 조정 신하들의 권력쟁탈을 직접 목격하고 풍자시(諷刺詩)를 지어 이를 시화(詩化)하기도 하였다. 그는 국내외의 학술, 예술을 잇는 중개자로서 문화교린적인 면에서 지대한 공을 세웠다.<sup>11)</sup>

## 2. 譯官의 地位

역관(譯官)은 중인(中人)의 신분에 속한다. 사대부와 같이 높은 벼슬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처지는 못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천인(賤人)의 신분도 아니었다. 중인(中人)은 그들의 직업이었던 의(醫)·역(譯)·산(算)·관상(觀象)·율(律)·혜민(惠民)·사자(寫字)·도화(圖畫) 등 기술과 사무 등 실무직에만 종사할 수 있었으므로 그들의 사회적 활동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다.

양반과 같은 관직(官職)을 가질 수는 없었으나 특별히 공로가 있는 자는 지방관(地方官)으로 나갈 수 있었으며, 연구(年久)한 자를 양반의 실직(實職) 또는 영직(影職)에 붙이는 정도였다. 이상적(李尙迪) 역시 중인으로서 역관을 지냈는데

10) 震檀學會, 『韓國史』, 「近世後期篇」 第3篇, 第9章 3節.

11) 이윽희, 전개논문, p.8.

이와 같은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의 직업상 몇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음을 김양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첫째, 통역에 관계되는 교육을 받아야 했으므로 자연히 문필과는 필연적인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연행사신(燕行使臣)과 상대하여 시문을 수창(酬唱)해야 했고 현지(燕地)에 도착하면 통역하는 일과 문서의 작성 그리고 시문을 주고 받는 일을 해야 했다.

둘째, 사무역(私貿易) 형태를 이용한 부(富)의 축적을 기할 수 있어 대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문화 예술에 대한 소양과 발전을 기할 수 있었다.

셋째, 외국 여행에서 선진 문물을 흡수하여 박학다식으로 세련된 말씨와 행동으로 모든 사무를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sup>12)</sup>

역관들은 외국어를 우리말로 번역하고 통역하는 기술인으로서만이 아니라 경학(經學)과 문학(文學)에도 밝았다. 그리하여 조선조(朝鮮朝) 후기에 들어오면서 많은 역관들의 문집 간행 등의 문학 활동이 이어지고 있었다.

조선 시대 역관(譯官)에 대한 교육은 사역원(司譯院)에서 맡았다. 사역원(司譯院)은 이미 고려말 통문관(通文館)을 설치하고 한어(漢語)를 가르친데서 시작하였고, 조선조에서는 한어(漢語), 몽어(蒙語), 여진어(女眞語), 왜어(倭語) 등 외국어를 가르쳐 왔다.

역관(譯官)에 대한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현지(現地)에서의 교육으로, 사행원(使行員)의 입연(入燕) 때에 함께 보내기도 하고, 종사관(從事官)으로 보내거나, 요동(遼東)으로 보내 학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역원(司譯院) 안에서는 일절(一切) 우리말 사용을 금지시키고 공사의론(公事議論)으로부터 숙식(宿食)·기거(起居)에 이르기까지 한어(漢語)를 사용하도록 했다.<sup>13)</sup>

12) 김양수, 「朝鮮後期 譯官에 대한 一研九」,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발표요지, 1983. 8.

13) 世宗實錄, 卷 九十五, 十九, 二十四年, 二月 己巳條.

역관(譯官) 이상적(李尙迪)은 사행(使行)을 따라 무려 12번이나 중국을 다녀왔다. 그 노정을 살펴보면, 漢陽→平壤→義州→鴨綠江→鳳凰城→連山關→遼東→瀋陽→廣寧→沙河→山海關→通州→燕京(北京)에 이르는 3,000여 리에 달하는 긴 여정인데 왕복 80일, 거의 3달이 걸리는 셈으로 한번 길을 떠나면 5~6개월이 걸리는 오랜 여행길이였다.<sup>14)</sup> 이 기간 중 약 60일은 북경(北京)에 머무르면서 청(淸)의 학자들과 접촉하고, 서학(西學) 등 서구(西歐)의 과학적인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 3. 譯官으로서의 生涯와 業績

이상적(李尙迪)은 순조(純祖) 3년(1803)에 태어나서 고종(高宗) 2년(1865) 63세를 일기(一期)로 세상을 떠났다.

이상적(李尙迪)의 자(字)는 혜길(惠吉) 또는 윤진(允進), 호는 우선(藕船)이며 본관(本貫)은 우봉(牛峯)<sup>15)</sup>이다. 그의 집안은 9대에 걸쳐 30여명의 역과합격자(譯科合格者)를 낸 세습역관(世襲譯官) 집안이었다.

생부(生父)인 이정직(李廷稷, 1781~1816)은 상적(尙迪)과 상건(尙健)의 두 아들이 있었으나, 백부(伯父)인 이명유(李命裕)가 아들이 없어 이상적이 출계(出系)하였다. 이명유(李命裕)는 한 때 군수(郡守)로도 있었던만큼 그가 출생할 당시에 한해서는 그 가정이 비교적 영달한 편이었다.

그의 생부 이정직(李廷稷)은 중인(中人) 신분의 다인(茶人)인 추재(秋齋) 조수삼(趙秀三, 1762~1849)과의 교분으로 당시 위항시사(委港詩社)의 대표격인 송석원시사(松石園詩社)에 함께 드나들었고, 그 맹주(盟主)인 천수경(千壽慶)을 비롯한

14) 천병식, 『韓國茶詩作家論』, 국학자료원, 1996, p.242.

15) 황해도 金川의 옛이름으로 『譯科傍目』 『醫譯八世譜』에는 江陰이라 표기됨.

다인(茶人)인 장혼(張混), 차좌일(車佐一) 등과 교분이 두터웠으며 종숙(從叔) 이 정주(李廷柱, 1778~1853)도 당시 시사활동(詩社活動)에 활약한 인물이었다.

처가(妻家)도 역시 장인(丈人) 김상순(金相淳)이 한역관(漢譯官)을 지냈고, 처남(妻男) 김경수(金景逵, 1818~?)도 역관으로서 중국에 내왕하여 《공보초략(公報抄略)》 등 개화(開化)에 관한 서적을 들여오기도 하였다. 이렇듯 전형적인 역관의 가문에서 태어난 이상적(李尙迪)은 나면서부터 병약하여 9세가 되어서야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 때 이미 《시경(詩經)》의 중요성을 누누이 들어오면서 이상적(李尙迪)은 성장하였다. 14세에 부친을 여의고 모친은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가면서 상적(尙迪)을 엄격하게 가르쳐 학업에 매진하게 했다.

그는 모친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유지(遺志)를 받들어 주야로 《예기(禮記)》를 읽으며 예(禮)를 실행했고, 아우 이상건(李尙健)과의 우애(友愛)가 심히 두터웠다. 이와 같은 부모, 형제와의 우의(友誼)는 그대로 발전되어 스승인 김정희(金正喜)를 비롯한 많은 사대부와의 교류를 통하여 지속된다. 이상적(李尙迪)은 23세 되던 1825년에 식년시(式年試) 역과(譯科)에 합격하고 26세에는 춘당대강연(春塘臺講筵)에서 순조(純祖)에게 주목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재질을 드러내었다.<sup>16)</sup>

그 뒤 헌종(憲宗)으로부터 전답(田畓)과 노비(奴婢)를 하사 받고<sup>17)</sup> 이후로 헌종(憲宗) 13년에 이르기까지 다섯 차례나 품계(品階)가 올랐으며 비서성(秘書省)에 재직하면서 정조(正祖), 순조(純祖), 헌종(憲宗)의 《국조보감(國朝寶鑑)》을 교간(校刊)하기도 했다.<sup>18)</sup> 헌종(憲宗)은 직접 이상적(李尙迪)의 시를 읽고 비각(秘閣)에서 새기도록 명을 내렸다.

그의 시문집(詩文集)은 《은송당집(恩誦堂集)》으로 제호(題號)되어 청의 오찬

16) 李尙迪, 『恩誦堂集』 詩卷九, p.201. <十月 廿二日 春塘臺講筵 恭紀一絕>

17) 李尙迪, 『恩誦堂集』 詩卷八, p.198. <四月二日 奉 教祇領田土藏獲之 賜 恭賦紀恩>

18) 李尙迪, 『恩誦堂集』 續集 詩卷一, p.249. <秘書省秋夜>

(吳贊)에 의해 북경(北京)에서 1848년 발간되었다. 신분 격차가 심한 사회에서 사대부도 아닌 역관(譯官)의 문집이 비각(秘閣)에서 발간될 경우에 사대부들의 논란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상적(李尙迪)은 잦은 연행(燕行)에서 신분에 개의치 않고 자신을 상대해 준 청(淸)의 지우(知友)들과 더욱 가까워졌고 그의 문집은 청의 문사간(文士間)에 명성이 자자했다.

중국의 선종(宣宗, 1820~1856) 황제도 그의 문집을 읽다가 곁에 있는 자에게 흥미할 것을 권하면서 찬탄하였다 한다.

김정희(金正喜)의 문하(門下)에서 금석학(金石學)에 대한 안목을 기르던 이상적(李尙迪)은 우리의 고비명(古碑銘)의 탁본(拓本)을 청의 유희해(劉喜海)에게 전해 주어 제2의 대저(大著)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을 인행(印行)케 한 사실은 유명하다.<sup>19)</sup>

이상적(李尙迪)의 말년(末年)에는 청과 국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아편전쟁(阿片戰爭, 1840~1843), 태평천국의 난(太平天國亂, 1851~1854), 영불동맹군과의 전쟁(英佛同盟軍戰爭, 1857~1858) 등의 전란이 계속되었고 국내에서도 세도정치(勢道政治)와 농민들의 민란이 확산되는 시기였다.

그는 청의 어지러운 상황이 조정의 위정자(爲政者)들의 잘못에서 기인했다고 판단하고, 조선의 경우도 세도가(勢道家)들에 의한 부정부패에서 정치적 문란(紊亂)이 야기되었다고 보았다. 그는 일찍이 권력 투쟁의 비정한 실상을 질타하기도 했거니와, 말년에 이르러 탐관오리의 부패를 신랄한 필치로 묘사하기도 한 것은 그의 현실인식을 알게 해주는 좋은 예다.<sup>20)</sup>

철종 13년(1862년 1월 20일)에는 60세의 나이에 종신직(終身職)인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임명되었다. 이듬해(1863년)엔 11차 연행(燕行)이 있었고 그 해 7

19) 李尙迪, 『恩誦堂集』 詩卷三, p.181. <劉燕庭喜海>

20) 김진생, 전개논문, p.22.

월 22일에 온양군수(溫陽郡守)로 부임하여 같은 해 9월 중양절(重陽節) 하루 전날에 관직을 물러났다. 이어 1864년 62세 되던 해 제 12차 연행(燕行)을 마쳤으나 병으로 실질적인 활동은 정지된 상태였다. 이 연행을 끝으로 병을 이기지 못한 채 생을 마쳤다. 1865년 8월 5일 그의 나이 63세였다.

이상적(李尙迪)이 연행(燕行)하였던 시기와 목적을 도표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sup>21)</sup>

<표 1> 이상적의 연행 시기와 목적

회 수	시 기	연 행 목 적	연행기간
제 1차	순조(純祖) 29년~순조(純祖) 30년 (1829년 10월 27일~1830년 3월 24일)	동지겸사은사행 (冬至兼謝恩使行)	약 5개월
제 2차	순조(純祖) 31년 (1831년 7월 22일~12월 11일)	사은사행 (謝恩使行)	약 5개월
제 3차	헌종(憲宗) 2년~헌종(憲宗) 3년 (1836년 10월 16일~1837년 3월 17일)	동지겸사은사행 (冬至兼謝恩使行)	약 5개월
제 4차	헌종(憲宗) 3년 (1837년 4월 20일~8월 15일)	진청겸사은사행 (秦請兼謝恩使行)	약 4개월
제 5차	헌종(憲宗) 7년(1841년)		
제 6차	헌종(憲宗) 8년~헌종(憲宗) 9년 (1842년 10월 19일~1843년 3월 30일)	동지겸사은사행 (冬至兼謝恩使行)	약 6개월
제 7차	헌종(憲宗) 10년~헌종(憲宗) 11년 (1844년 10월 26일~1845년 3월 28일)	진청겸사은 (秦請兼謝恩)	약 5개월

21) 정후수, 「이상적시문학연구」, p.38 참고.

제 8차	헌종(憲宗) 13년~헌종(憲宗) 14년 (1847년 10월 27일~1848년 3월 24일)	동지겸사은사행 (冬至兼謝恩使行)	약 5개월
제 9차	철종(哲宗) 4년(1853년)		
제10차	철종(哲宗) 9년~철종(哲宗) 10년 (1858년 10월 26일~1859년 3월 20일)	사은겸동지사행 (謝恩兼冬至使行)	약 5개월
제11차	철종(哲宗) 14년 (1863년 2월 13일~6월 16일)	진진행 (陳秦行)	약 4개월
제12차	고종(高宗) 1년 (1864년 1월 21일~5월 23일)	고부청시겸승습진청행 (告訃請諡兼承襲秦請行)	약 4개월

위와 같이 1829년 10월, 그의 나이 27세 때부터 1864년 5월, 그의 나이 62세 때까지 35년에 걸쳐 12회 여행하였으며 총 여행기간은 4~5년 가량 된다. 그 목적은 동지겸사은사행(冬至兼謝恩使行), 사은사행(謝恩使行), 진청겸사은사행(秦請兼謝恩使行), 사은겸동지사행(謝恩兼冬至使行), 진진행(陳秦行), 고부청시겸승습진청행(告訃請諡兼承襲秦請行) 등이 있었다.

#### 4. 朝鮮과 淸에서의 인간적 交遊

이상적(李尙迪)은 빈곤한 생활로 인해 정식으로 학문을 하지 못하고, 모친의 독려 속에 학문에 매진하여, 23세 되던 1825년 식년시(式年試) 역과(譯科)에 합격하게 된다. 이 시기에 그의 스승은 자산(茨山) 박선성(朴善性)과 벽산(碧山) 정민수(鄭民秀, 1769~1828) 등이었다.

정민수(鄭民秀)는 당시 여향인(閭巷人)<sup>22)</sup> 자체의 교육을 받았던 인물이고, 자산

22) 여향인(閭巷人)의 뜻은 세상 사람들 혹은 서민들의 뜻도 있으나 대개 중인 계층의

(茨山)은 당시 여항인(閩巷人) 중에서 학식과 시재(詩才)를 겸한 인물로 1813년에 입연(入燕)하여 청의 옹방강(翁方綱), 유부초(劉芙初), 송지만(宋芷灣) 등과 교유하였다.<sup>23)</sup>

한편 두실(斗室) 심상규(沈象奎, 1766~1838)와도 교유가 있었는데 두실(斗室)도 1812년 10월에 연행(燕行)하여 소제(蘇齊)에서 옹방강(翁方綱)의 아들 성원(星原)과 교분을 맺었다. 옹성원(翁星原)과는 비첩(碑帖)과 서적(書籍) 등을 주고받았는데, 그와의 두터운 교분은 이상적(李尙迪)이 옹방강(翁方綱)의 제자들과 교유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진다.<sup>24)</sup>

이상적(李尙迪)은 27세 되던 해인 1829년 제 1차 연행시 오승량(吳崇梁, 1776~1834)<sup>25)</sup>, 유희해(劉喜海, 1794~1852), 진극명(陳克明), 주대원(朱大原) 등 청의 문인학자(文人學者)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옹방강(翁方綱)의 제자들로 시(詩)·서(書)·화(畫) 및 금석학(金石學)에 상당한 조예를 갖고 있었다. 1831년 제 2차 연행시에 만나게 된 섭지선(葉志詵), 의극중(儀克中), 이원경(李元慶), 완복(阮福), 수곤(秀琨), 경조(慶照)들도 시·서·화에 조예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과의 교유의 모습을 살피는데 있어서 《해린척소(海隣尺素)》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여기에는 청의 문인(文人) 39명이 보내 온 척독(尺牘) 105통이 실려 있다.<sup>26)</sup> 우선(藕船)은 이들과의 문학적(文學的) 교유에 대해 ‘마고(麻姑)를 빌어 내 등 가려운 데를 긁는 것 같다.(似倩麻姑搔我癢)’<sup>27)</sup>고 말하고 있고, 그 곳의 교유 풍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

사람을 뜻한다. 위항인(委巷人)이라고도 한다.

23) 이영숙, 전계논문, p.8.

24) 이영숙, 상계논문, p.8.

25) 吳崇梁(오승량)은 청나라 강서동향(江西東鄉) 사람으로 자(字)는 난설(蘭雪)이고 호(號)는 석계방(石溪舫)이다. 그는 시에 능해 조선 때 이조판서를 지낸 김노경(金魯敬)은 그를 시불(詩佛)이라고 불렀다.

26) 김진생, 전계논문, p.10.

27) 李尙迪, 『恩誦堂集』 詩卷二, p.177.

生材不擇地    타고난 재주 지방을 가리지 않으니  
 胸中鬱奇致    가슴속에 기이한 운치 가득하네  
 言言知我深    말마다 나를 알아줌이 깊어  
 感媿零涕淚    감격스럽고 부끄러워 눈물이 떨어지네  
 珍重翰墨緣    珍重한 翰墨의 인연도  
 猶屬第二義<sup>28)</sup>    오히려 第二義에 속하네<sup>29)</sup>

조선이든 중국이든 태어난 나라를 가리지 않고 재능을 인정해주는 청의 명사(名士)들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다. 그래서 막상 시(詩)를 주고받는 한묵(翰墨)의 인연도 ‘지아(知我)’에 비하면 다음 차례에 서게 된다는 것이다. 당시 조선 사회는 신분적 갈등이 심하게 인식되었다. 이에 비해 자신의 능력에 의해 인정받을 뿐, 신분적 관계를 느끼지 않았던 청의 풍토에서 우선(藕船)은 비교적 자유롭게 감정을 교환할 수 있었다.

그는 실제로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많은 금석 관계 자료를 소장하였다.<sup>30)</sup>

청조(淸朝) 문인(文人)과의 교류로 새로운 세계를 접한 우선(藕船)은 당시 청과의 국제 문화교류의 교량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자신의 스승이던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5~1856)와 자하(紫霞) 신위(申緯, 1769~1847)등을 비롯해 유관(遊觀) 김홍근(金興根, 1796~1870), 심암(心菴) 조두량(趙斗涼, 1796~1870), 이재(霽齋) 권돈인(權敦仁, 1783~1859)등 당시 금석(金石) 및 서화고독(書畫古董)에 관심을 가졌던 조선의 인물들과 청 문인(文人)들 사이의 실질적인 교류를 맡았던 것이다.

28) 李尙迪, 『恩誦堂集』 續集 詩卷四, p.271. <續懷人詩> 中 “玉泉潘觀察曾瑋”

29) 김진생, 전계논문, p.12.

30) 정후수, 「이상적시문학연구」, p.45.

“懷粵水吳山燕市之人 交道縱橫三萬里 藏齊刀漢瓦晉壺于室 墨緣上下數千年.” (월수(粵水)·오산(吳山)·연시(燕市)의 사람과 사귄 길이 종횡3만리요, 재도(齋刀), 한와(漢瓦), 진진(晉壺)을 집에 소장하니 묵연(墨緣)이 상하(上下) 수천년이라.) 라고 대련(對聯)하여 김정희(金正喜)에게 전서(篆書)를 받아 서옥(書屋)에 걸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우선은 1830년 추사의 문하에 들어서게 되었다.

추사는 당시 실학의 제 3기인 실사구시파(實事求是派)의 선두 주자였다. 우선(藕船)은 ‘薄藝多慙早及門’이라 하여 스스로 추사(秋史)의 제자임을 밝혔다.

1832년에는 당시 시·서·화 삼절로 알려졌던 자하(紫霞) 신위(申緯)와 인연을 맺어 자하(紫霞)가 평신진첨사(平薪鎭僉使)로 나갈 때, 송별시(送別詩)를 지어주고 자하는 그 답시(答詩)를 지었는데, 자하는 이상적(李尙迪)의 시가 서릉(徐陵), 경신(庚信)의 옥대체(玉臺體)처럼 섬려하고, 심정균(潘庭筠), 이상은(李商隱)의 서곤체(西崑體)처럼 농염하여 시를 볼 줄 아는 사람이면 다 아름답게 여길 것이라고 칭찬하였다.<sup>31)</sup>

금석학(金石學)의 전망을 밝게 펼쳐갔던 유희해(劉喜海)의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에 이상적(李尙迪)이 그 앞머리 〈제사(題辭)〉를 쓴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며, 두 나라 사이의 금석문화(金石文化) 교류의 실상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여기에서 조선(朝鮮)의 금석문(金石文)이 청(淸)에 전해진 것에는 이상적(李尙迪)의 교량적 역할과 연구가 크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32)</sup>

이상적(李尙迪)은 비록 옹방강(翁方綱)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으나 유희해(劉喜海)를 통해 금석학(金石學)을 배웠다. 자기의 스승인 김정희(金正喜)가 북한산(北漢山) 진흥왕(眞興王) 순수비(巡狩碑)를 발견하고 그 건립(建立) 연대(年代)를 추정했을 때 그는 그 고증(考證)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했다.<sup>33)</sup>

1843년 이상적은 제주에 유배되어 있던 김정희에게 《만학집(晩學集)》, 《대운산방집(大雲山房集)》, 《황청경세지편(皇淸經世之編)》 등 구하기 어려운 책을 청에서 구해 보냈다. 당시 김정희는 정치적으로 몰락한 상태였는데 이상적의 이러한 한결같은 신의에 감동하여 김정희는 《세한도(歲寒圖)》를 그려 그에게 주

31) 신위, 『警修堂全藁』, 11冊 56卷. <次韻 答 藕船> (二)

32) 이영숙, 전개논문, p.9.

33) 李尙迪, 『恩誦堂集』 續集 文券二, p.244. <新羅眞興王巡狩碑拓文書後>

었다.

그는 오관영(吳冠英), 장요손(張曜孫), 왕홍(王鴻), 왕해문(王海門) 등과 교유하여 시를 주고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림에 제(題)를 쓰기도 했다. 이들의 교분은 그리움으로 남아 <속회인시(續懷人詩)><sup>34)</sup>에 잘 묘사되어 있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아들 정학연(丁學淵, 1783~1859)과도 뒤늦게 인연을 맺어 남다른 정리가 오갔다. 정학연이 광릉(廣陵)에서 글을 가르치면서 시를 보내오자 이에 차운(次韻)하여 감사의 뜻을 보내기도 하였고<sup>35)</sup>,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이상적(李尙迪)의 만시(挽詩)는 노학자(老學者)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감동적이었다.<sup>36)</sup>

후배 역관으로서 중요한 관련을 맺은 인물은 김정희(金正喜)의 문하에서 학문을 익히고 금석문(金石文)에 대한 열의가 있었던 역해(亦海) 오경석(吳慶錫)을 비롯한 방의용(方義龍), 김석준(金奭準), 최성학(崔性學) 등이다.

이상적(李尙迪)의 문하에 있던 소당(小棠) 김석준(金奭準, 1831~1915)은 이상적이 타계한 5년 후인 1869년에 《우선정화록(藕船精華錄)》을 엮기도 하였는데, 그들은 문인(門人)끼리 자주 모여 이상적(李尙迪)의 시(詩)에 차운(次韻)하기도 하였다.<sup>37)</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 이상적(李尙迪)은 한국과 중국의 학술 및 예술을 잇는 중개자였을 뿐만 아니라 우선(藕船) 자신도 시문학의 수준 높은 경지에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예술과 학문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주옥같은 많은 시를 남겼고 그 중 전통다도문화에 공헌할 만한 다시문(茶詩文)을 상당히 많이 남겼다는 점이 주목된다.

34) 李尙迪, 『恩誦堂集』 續集 詩卷四, p.270. “子梅王少尹鴻”, “中遠張觀察曜孫”

35) 李尙迪, 『恩誦堂集』 續集 詩卷六, p.281. <西山先生…次韻以謝>

36) 이영숙, 전개논문, p.12.

37) 이기編, 「晩秋偕璜谿小棠研農 夜飲 拈藕船師韻」 『朝野詩選』, 아세아문화사, 1982, p.396.

### Ⅲ. 茶家로서의 李尙迪

#### 1. 恩誦堂集에 나타난 茶詩文

《은송당집(恩誦堂集)》에 ‘茶’자와 ‘茗’자가 언급된 시문이 40여수에 이른다. 정후수는 그의 논문에서 중인의 문학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임진(壬辰)과 병자(丙子) 양난(兩亂) 이후 조선은 사회적 정신적으로 많은 변혁을 가져왔고, 더욱이 실사구시(實事求是)라는 현실적 가치관이 대두되면서 신분제도와 계급의식이 쇠미(衰微)해져 문학 활동 자체에도 큰 변모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 중 두드러진 경향이 중인문학(中人文學)의 대두이다. 문학 담당자로서의 중인(中人), 그 중에서도 역관(譯官)들이 차지하는 문학적 비중은 매우 컸다. 이미 고려시대부터 특별히 교육되어 세습되어 온 역관들은 중국을 왕래하면서 현실 및 자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물론, 서학(西學)을 통해 개신한 청문화(淸文化), 곧 북학(北學)의 충격을 받게 된다. 문학에서도 사대부들의 전유물이었던 문학활동이 중인(中人)들에게도 커다란 부분을 넘겨주게 되었고 여기에서도 중인들이 차지한 위치는 선봉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서얼차대(庶孽差待)가 빚은 계층이었으므로 반상(班常)의 차대에는 엄연히 양반의 대접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부(富)를 이루었으며 권세를 획득하여 자아의식이 더욱 가속화되고 중인들로 하여금 사대부의 예속이 아니라 그들과 동등한 개체로서의 인간임을 선언하려는 묵언의 항변을 문학으로 표현하였던 것이다. 사대부들도 이를 어느 정도 묵인하였으므로 사대부들만의 모임이었던 시사(詩社)나 문집편찬(文集編纂) 등이 서류(庶類)는 물론, 중인들에게서도 유행하는가 하면 공동체적 문학활동까지도 속출하였다.<sup>38)</sup>

38) 정후수, 「이상적시문학연구」, p.3~p.6 참고.

우선(藕船)의 글에서 '茶'가 주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시를 추려보면 다음의 14수 가량이 된다.

- ① <臨漢亭> 『恩誦堂集』 詩卷一, p.170.
- ② <挹茶> 『恩誦堂集』 詩卷二, p.174.
- ③ <洪海居駙馬見邀 與東樊共賦> 『恩誦堂集』 詩卷三, p.183.
- ④ <余久病恹寒 堂宇疎冷 新設障格 因題其上>(2首)  
『恩誦堂集』 詩卷六, p.192.
- ⑤ <過慈仁寺> 『恩誦堂集』 詩卷七, p.195.
- ⑥ <重陽之翌 過三台山莊> 『恩誦堂集』 詩卷八, p.198.
- ⑦ <夜坐口占> 『恩誦堂集』 詩卷九, p.199.
- ⑧ <松濤> 『恩誦堂集』 詩卷九, p.200.
- ⑨ <茶煙> 『恩誦堂集』 詩卷九, p.201.
- ⑩ <秋懷雜詩>(8首 中 二,八) 『恩誦堂集』 續集 詩卷一, p.252.
- ⑪ <白山茶歌 謝朴景路> 『恩誦堂集』 續集 詩卷一, p.254.
- ⑫ <金小棠惠富士山茶及茶壺 皆曰本物也> (2首)  
『恩誦堂集』 續集 詩卷二, p.261.
- ⑬ <黃州途中> 『恩誦堂集』 續集 詩卷六, p.281.
- ⑭ <蝶菴比部寄餉湓茶> 『恩誦堂集』 續集 詩卷七, p.289.

## 2. 국제적 飲茶文化의 체득

### (1) 淸의 茶文化 체득

우선(藕船) 이상적(李尙迪)은 음다문화에 대해 국제적인 식견을 지녔다. 그의

다가(茶家)로서의 면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다음의 글이 있다. 이 시는 박경로에게 차를 선물 받고 감사하는 시를 지은 것이다. 그는 중국에 12번 연행하였는데 이 시는 9번째 연행 후에 지은 것으로 보이는데 대략 그의 나이 50세 이후였던 것 같다. 당시에 '천하의 명차'를 두루 맛보았다고 했으니 그의 다문화(茶文化)에 대한 식견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白山茶歌 謝朴景路><sup>39)</sup>

박경로에게 사례하는 백산차의 노래

我曾九泊燕河槎	내 일찍이 북경과 황하에 아홉 차례나 뗏목을 대어
嘗盡天下有名茶	천하에 이름있는 차 모두 맛보았다네
十二街頭茶博士 <sup>40)</sup>	열두 거리에는 차박사요
賣茶多於賣漿家 <sup>41)</sup>	차 팔이가 장 팔이 집보다도 많다오
歸臥敝廬談龍肉	돌아와 허술한 집에 숨어 살면서 용육을 이야기하고
手把茶經空咨嗟	다경을 손에 잡고 헛되이 한숨 쉬며 한탄하네
湖僧竹露(茶名)出新製	호남의 스님이 싹튼 죽로(차이름)를 새로 만드니
時人往往如嗜癡	당시 사람들 때때로 헛 딱지를 즐기듯 하었네
祇應所貴吾鄉物	이에 우리 향토의 산물은 응당 귀함을 당하네
終是香味澁齒牙	끝내 향기로운 맛이 이빨에 막히네
不咸一網感君惠 <sup>42)</sup>	그대가 준 불함의 만물차 고맙기가
天寒肺病當三椀	추운 날씨 폐병의 인삼에 필적하네
誰知此土乃有此	누라서 알리오 이 땅에도 이런 차가 있었나니
譬如人才出荒遐	오랑캐 땅에서 인재가 난 것 같네

39) 李尙迪, 『恩誦堂集』 續集 詩卷一, p.254. <白山茶歌 謝朴景路>

40) 茶博士(차박사)는 茶博, 茶道의 名人 혹은 茶道의 宗師를 말한다. 轉義하여 茶店의 給仕人을 일컫는다. [西湖志餘] 杭州先年有酒館, 而無茶坊, 然當家燕會, 猶有尊供茶事之人謂之茶博士.

41) 漿(장)은 밥을 물에 담가서 유산발효시킨 새콤한 음료를 가리킨다. 옥편에는 ① 미음.

② 마실 것, 음료, ③ 풀, 풀을 먹이다.라고 표기되어 있다.

42) 不咸(불함)은 『시경(詩經)』의 '周公弔二叔之不咸'과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但恨難得中冷水	다만 중영수 얻기 어려움은 원통하나
無勞遠購武夷芽 <sup>43)</sup>	멀리서 무이차 사기는 힘들지 않네
君不見江南御茶不入貢	그대는 못보았더니, 강남의 어용차는 바치지 않는 것을
旗槍埋沒隨蟲沙	앞과 짝은 벌레와 모래에 따라서 매몰되었네
又不見泊汴年年通百貨	또 해마다 배대고 백화의 통상 취하기를 못보았으니
今秋無箇水仙花	올 가을엔 수선화도 없다네
茶話故人散如雨	정든 벗과의 차이야기 비처럼 흩어지고
(謂程穉蘅茶話圖)	(정치형의 다화도를 말한다)
烽烟已入天津涯	봉화 연기는 이미 천진별 근처에 들어갔다네
何幸吾生享多福	어찌 내 생애에 복을 많이 누리는데 행복이라 하라
煎茶覓句送年華	차 달이고 시귀 찾기로 묵은 해를 화려하게 보낸다네 <sup>44)</sup>

이 글의 제목에 나오는 백산차(白山茶)가 송나라 육유(陸遊, 1125~1210)의 시나 <죽창야화(竹窓夜話)>에 나오는 백산차인지, 아니면 백두산에서 나는 백산차인지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 ‘불함(不咸)’이라는 글자를 ‘불함산(不咸山)’으로 본다면 ‘백두산’을 가리키는 말이 된다.<sup>45)</sup> 그리고 그는 육우(陸羽, 733~804)가 쓴 《다경(茶經)》을 탐독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당시에 호남의 승려가 만든 ‘죽로(竹露)’라는 차가 있었는데 그 차는 짧은 맛이 났지만 향기와 맛이 있어 당시에 죽로차를 몹시 기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강(綱)’이라 함은 ‘벼리’의 뜻으로 이 글에서는 백산차가 첫물차 세작임을 뜻한다. 당시 중국에는 차를 파는 가게가 많았고, 차를 끓이는 전문가를 ‘차박사’라고 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시에서는 중국차를 선물 받고 청에 여행 갔던 기억을 찾고 있다. 이 시는 청의 접암(蝶菴) 장대(張垞)가 ‘송차(淞茶)’를 보내줌에 쓴 것이다.

---

43) 武夷芽 (무이아)는 武夷茶를 말하는데 福建省 武夷山에서 產出하는 紅茶名이다.  
 44) 김명배, 『韓國의 茶詩鑑賞』, 서울: 대광문화사, 1994, p.92 에서 이 시의 번역을 인용함.  
 45) 김명배, 상계서, p.92~p.94 참고.

<蝶菴比部寄餉淞茶><sup>46)</sup>

집암비부가 송차를 보내오다.

白甌封題綠雪芽 백자 항아리에 綠雪芽라고 써서  
郵筒迢遞返星槎 우편으로 보낸 통을 使臣 오는 길에 부쳐 왔네.  
夢迴穀雨淞江路 곡우 때의 淞江 가는 길을 꿈꾸면서  
臥聽松風洌水涯 누워서 洌水 가의 솔바람 소리를 듣네.

(후 략)

집암(蝶菴)은 청의 검주인(劍州人)으로 자(字)는 도암(陶庵), 호(號)는 집암거사(蝶菴居士)이다. 비부(比部)는 형부(刑部)의 별칭이다. 백자 항아리로 된 다호에 '녹설아(綠雪芽)'라고 쓴 곡우차인 송차(淞茶)를 보내준 것이다. 송차(淞茶)는 상해(上海) 북쪽에 있는 송강(淞江, 지금의 松江) 지방에서 나는 차(茶)이다. 이상적의 국제 교류를 통한 음다생활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子梅自青州寄詩. 索題春明六客圖. (자매가 청주에서 시를 보내오고 '춘명육객도'에 글을 써 달라고 하였다.)><sup>47)</sup> 에서 살펴보면 “藐余三韓客 生性慕中華… (멀리 나는 삼한(三韓)의 나그네인데, 나면서 본성이 중화를 사모하였네.)”라는 귀절에서 이상적(李尙迪)은 일면 중국을 대국으로 여겨 사모한 경향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적(李尙迪)이 자매(子梅) 왕홍(王鴻)을 처음 상면한 것은 1837년 제 4차 연행(燕行)에서였다. 처음 만난 그들은 문자교(文字交)로 사귀를 맺었고, 그 뒤에 여러 차례 드나들면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서신 왕래를 통해 신교(神交)를 유지했다.

다음 글은 계묘년(癸卯年)에 지은 글로 이상적이 정유년(丁酉年) 여름에 단목학전(端木鶴田), 황수재(黃樹齋), 왕맹자(汪孟慈), 진송남(陳頌南)과 함께 소원(小院)

46) 李尙迪, 『恩誦堂集』 續集 詩卷七, p.289. <蝶菴比部寄餉淞茶>

47) 李尙迪, 『恩誦堂集』 續集 詩卷二, p.258. <子梅自青州寄詩 索題春明六客圖>

에서 다회(茶會)를 연 기록이다.

<過慈仁寺> 48) 자인사를 지나며  
(丁酉夏. 與端木鶴田<sup>49</sup>)中翰, 黃樹齋<sup>50</sup>)侍郎, 汪孟慈<sup>51</sup>)農部陳頌南<sup>52</sup>)御史. 屢爲  
文酒之會於此. 鶴田歸道山已七年. 其餘諸君皆不在都. 愴然有作.)  
(丁酉年 여름, 中翰인端木鶴田·侍郎인黃樹齋·農部인汪孟慈·御史인  
陳頌南과 함께 여러 번 여기서 만나 文酒之會를 가졌었다. 鶴田은 道山  
으로 돌아간지 이미 7년이 되며 나머지 諸君도 모두 京都에 남아 있지  
않다. 슬픈 마음에 지었다.)

蕭寺城南尺五天	깔끔한 절은 城南의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데,
蒼苔門巷故依然	푸른 이끼 낀 門巷은 옛날이나 다름이 없도다.
十年獨過黃墟下	십년에 홀로 黃墟 아래를 지나니,
幾日重吟白社前	어느 날에나 다시 白社 앞에서 시를 읊을 것인가?
小院茶香春雪暖	小院의 차향기에 春雪이 따뜻하고,
古壇松翠夕陽圓	古壇의 소나무 푸른빛에 석양이 둥글도다.
法源迴首相隣近	法源으로 머리 돌리니 서로 이웃해 가까운데,

- 
- 48) 李尙迪, 『恩誦堂集』 詩卷七, p.195. <過慈仁寺>  
49) 端木鶴田(단목학진)은 端木國瑚로 淸, 靑田 사람이다. 字가 鶴田이고 號를 太鶴山人·靑田一鶴이라고 하였다. 嘉慶의 舉人. 文字로 阮元에게 알려지고 또 易에도 精通하였다. 官은 內閣中書, 著書에 周易指·太鶴山人詩文集이 있다.[淸史稿, 490]  
50) 黃樹齋(황수재)는 黃爵滋. 淸, 宜黃사람으로 字는 德成이고 號가 樹齋이다. 道光의 進士, 編修로부터 御史로 累進하였다. 敢言하여 回避하는 바가 없었으며, 禁煙을 請하는 데 가장 힘을 썼다. 刑部左侍郎을 除授하였다가, 일에 連坐하여 落職되었다. 어려서부터 詩로 著名하고 閩의 詩人 張際亮과 친하였다. 書室을 仙屏書室이라고 하였다. 著書에 奏議·詩文 및 다른 雜著 백 수십권이 있다. [淸史稿, 385]  
51) 汪孟慈(왕맹자)는 汪喜孫. 淸人이고 中의 아들이며 一名 喜荀, 字가 孟滋이다. 號는 且住庵이다. 嘉慶의 舉人. 官은 懷慶知府. 文字·聲音·訓詁學에 明通하였다. 書室을 問禮堂이라고 하였다. 著書는 且住庵詩文稿가 있다. [淸史列傳, 68]  
52) 陳頌南(진송남)은 陳慶鏞. 淸, 晉江사람이다. 字는 乾翔 또는 頌南이라 하고, 道光의 進士, 官은 御史, 直聲이 天下에 떨쳤다. 平生漢學을 精研하고, 宋儒를 服膺하였다. 著書에 籀經堂稿, 齋候豐銘通釋이 있다. [淸史稿, 384]

一樣鴻泥舊迹聯    鴻泥와 마찬가지로 옛 자취가 聯하였네.

여기서는 청의 인사들과의 교유에도 차가 빠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2) 日本의 茶文化 체득

이상적(李尙迪)은 소당(小棠) 김석준(金奭準, 1831~1915)으로부터 일본의 '부사산차(富士山茶)'와 다호(茶壺)를 선물받았다. 이상적의 문하에 있던 김석준은 이상적이 타계한 5년 후인 1869년에 《우선정화록(藕船精華錄)》을 엮기도 하였는데, 우선(藕船)은 다음의 글을 썼다.

<金小棠惠富士山茶及茶壺 皆日本物也><sup>53)</sup>(2首)

金小棠이 富士山茶와 茶壺를 주었다. 모두 일본물건이다.

### (一)

徐市祠前野草花	徐市 祠堂 앞에 들풀이 꽃피웠는데,
三山何處有仙家	三山 어느 곳에 仙家가 있는가?
可憐秦帝求靈藥	가련하다 진시황이여, 영약을 구했는데,
爭似先生一碗茶	다툼은 마치 선생의 一碗茶와 같구나.

### (二)

卵色瓷壺天下一	달걀색 瓷器병은 天下一인데,
(日本人稱製器之精良者曰天下一)	
(日本人是 製器의 精良한 것을 天下一이라고 한다.)	
手煎新茗滌煩惱	손수 새 차를 끓이니 가슴의 번뇌가 씻기네.
松風活火深深夜	松風에 불을 피워 밤은 깊어가는데,
似聽殘湖海上音	마치 바다 위 殘湖소리가 들리는 것 같구나.

53) 李尙迪, 『恩誦堂集』 續集 詩卷二, p.261. <金小棠惠富士山茶及茶壺 皆日本物也>

이 시에서 보면 당시에 이상적인 일본의 부사산에서 나는 햇차를 맛보고 번뇌가 없어지는 것을 느꼈다. 계란색의 다호(茶壺)는 찻단지인지 다관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는 주로 냄비류인 요(銚)에 차를 끓였으므로 다호는 찻단지로 짐작된다. 이로서 그는 일본차에 대한 식견도 지녔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상적인 그의 글 〈讀薦錄〉 54)에서 그는 평소 일본사람의 저술을 적지 않게 접하였다고 밝히고 그들의 인문학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 또 한번 그의 국제적인 식견을 확인할 수 있다.

### 3. 茶事와 茶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실행

#### (1) 철학적 茶事

이상적인 ‘茶事’라는 단어를 썼다. ‘다사(茶事)’는 차를 끓이고 마시는데 있어서의 제반 일을 뜻한다.

<洪海居駙馬見邀 與東樊共賦><sup>55)</sup>

(전 략)

茶事小闌如聽雨

書聲深屋不離燈

(후 략)

茶事하는 작은 난간에 빗소리 들리는 듯 하고

글읽는 소리 들리는 한적한 집에는 등불이 떠나

지 않네.

위의 시에서는 ‘茶事’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난간(闌干)에서 차를 끓였으며 찻

54) 李尙迪, 『恩誦堂集』 續集 文券二, p.242. 〈讀薦錄〉

55) 李尙迪, 『恩誦堂集』 詩卷三, p.183. <洪海居駙馬見邀 與東樊共賦>

물 끓는 소리를 빗소리에 비유했다. 우리 선조들은 구도적(求道的) 다생활을 하였다. 그래서 차를 끓이고 마시는 일을 공부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sup>56)</sup>

아래의 글에서 이상적(李尙迪)은 찻물 방울이 바로 부처라고 하였으며 끓인 차의 차쌍에 삼생(三生)이 비친다고 하였다. 이상적(李尙迪)의 철학적 다사(茶事)를 살펴본다.

<挹 茶> <sup>57)</sup>	차를 따르며
小盃挹茶水	작은 찻잔에 차를 따르니
千漚何蕩發	천 개의 거품이 잠깐 동안 일어나네
圓光散如珠	둥근 빛이 구슬처럼 흩어지는데
一珠一尊佛	하나의 구슬을 한 분의 부처님이라네
浮生彈指頃	덧없는 인생은 순간일 뿐인데
千億身恍惚	千億의 몸은 황홀하다네
如是開手眼	차를 마시니 손과 눈이 열리고
如是分毛髮	털과 머리카락이 확연히 분별되는구나
悟處齊點頭	깨달은 경지에선 모두 머리를 끄덕이고
參時同豎拂	참선할 때는 함께 망념을 떨치네
誰師而誰衆	누가 스승이며 누가 중생인가?
無我亦無物	나도 없고 남도 또한 없네
茫茫恒河沙	망망한 항하의 모래같은 중생들을
普渡非喚筏	두루 제도하기 위해 뗏목 부르지 않아도 된다네
泡花幻一嘘	차거품 꽃은 깨달음의 탄식으로 변하고
空色湛片月	空과 색은 조각달에 담기었구나
三生金粟影	三生이 여린 차쌍에 비치어
坐忘何兀兀	좌망하여 잠시 오뚝 앉았다네
萬緣了非眞	만 가지 인연은 참된 것이 아니니

56) 정영선, 『한국 茶文化』, p.336.

57) 李尙迪, 『恩誦堂集』 詩卷二, p.174. <挹茶>

焉喜焉足喝	어찌 좋아하고 기뻐서 소리칠 일 있으리
經傳陸羽燈	육우는 다경으로 등불을 전했고
詩呪玉川鉢	노동은 茶歌를 읊어 바릿대를 준 것이라네 <sup>58)</sup>

위 글에 나타난 이상적의 다도사상에 대해 정영선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이 글의 부처(佛)라 함은, 석가모니를 포함하여 대도(大道)를 깨달은 성인(聖人)과 보살들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적이 차물을 부처라고 한 것은 차가 오도(悟道)하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다. 즉 차가 인간의 존재, 인연 등을 깨우쳐 주므로, 다(茶)의 성(性)과 부처(佛)의 성(性)을 같은 것으로 본 것이다. 그는 차를 마시고 나서 인생은 순간일 뿐이며 나와 남의 구별도 없고, 인간은 한 알의 모래와 같음을 깨달았다. 또 그는 차잎에서 자신의 현재와 전생 후생을 보고 좌망하였다 하였는데, 이는 그가 차를 마시고 견성(見性)하여 오도(悟道) 혹은 득도(得道)의 경지에 있음을 뜻한다.

마지막 구절에 있는 등은 부처의 지혜를 뜻하고 바릿대는 불가에서 스승이 제자에게 전수하는 의발(衣鉢)을 뜻한다. 따라서 육우의 『다경(茶經)』은 다법(茶法)이 있는 경전과 같고, 노동의 시는 그로 인해 차를 더욱 즐겨 마시게 된다고 생각한 것으로 짐작된다.<sup>59)</sup>

우선은 중국의 음다문화(飲茶文化)를 체험한 다인(茶人)으로서 그냥 음료로서 차를 끓여 마시지 않고, 다사(茶事)를 통해 심오한 불교의 철학적 진리를 터득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이상적은 거품이 있는 말차(末茶)를 소완(小盥)에 따라 마셨다.

다음 시에서 이상적은 음다생활에서 검소함과 안분지족(安分知足)을 지향했음을 알 수 있다.

58) 정영선, 『다도철학』, 서울: 너럭바위, 1996, p.170~p.171에서 이 시의 번역을 인용함.  
59) 정영선, 상계서, p.172.

<余久病恹寒 堂宇疎冷 新設障格 因題其上><sup>60)</sup> (2首) 중 (二)

나는 오래 된 병으로 추위를 겁내는데 집이 엉성하여 차다. 새로 障格을 만들고 그 위에 쓰다.

翡翠金屏望太奢 翡翠金屏風은 바라보니 너무 사치하고  
梅花紙帳分堪誇 매화 그린 紙帳이 분수에 자랑할 만 하네.  
若將世味商濃淡 만약 세상 재미 濃淡을 따져 볼 양이면,  
羔酒終輸雪水茶 羔酒는 결국 雪水茶만 못 하리라.

여기서 지장(紙帳)은 종이로 만든 방장(房帳)이며, 고주(羔酒)는 고주자로(羔酒自勞)의 약어로서 새끼 양을 삶고, 두주(斗酒)를 마시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을 말하며 설수차(雪水茶)는 눈 녹은 물로 끓인 차를 뜻한다. 자하는 향기로운 술보다 눈물로 차를 끓여 맛보는 것이 삶의 재미를 훨씬 더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다음의 시에서는 차(茶)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金小棠惠富士山茶及茶壺 皆日本物也><sup>61)</sup> (2首)

金小棠이 富士山茶와 茶壺를 주었다. 모두 일본물건이다.

(二)

卵色瓷壺天下一 달걀색 瓷器병은 천하제일인데,  
(日本人稱製器之精良者曰天下一)  
(일본인은 만든 그릇이 매우 정교한 것을 천하제일이라고 한다.)  
手煎新茗滌煩惱 손수 새 차를 끓이니 가슴의 번민이 씻기네.  
松風活火深深夜 松風에 불을 피워 밤은 깊어가는데,  
似聽殘湖海上音 마치 바다 위 殘湖소리가 들리는 것 같구나.

당시에 이상적인 일본의 부사산에서 나는 햇차를 맛보고 번뇌가 없어지는 것

60) 李尙迪, 『恩誦堂集』 詩卷六, p.192. <余久病恹寒 堂宇疎冷 新設障格 因題其上> 2首

61) 李尙迪, 『恩誦堂集』 續集 詩卷二, p.261. <金小棠惠富士山茶及茶壺 皆日本物也>

을 느낀 것이다.

## (2) 깍다(喫茶)와 손수 행한 다사(茶事)

다음은 연행(燕行)의 오랜 여정에 지친 이상적(李尙迪)이 고향에 대한 향수와 깍다를 나타낸 시이다.

<黃州途中><sup>62)</sup>      황주 가는 길에  
(전    락)  
春深如此猶爲客      봄은 이렇게 깊어가는데 아직도 나그네 되어  
酒薄何曾勝似茶      薄酒가 어찌 차보다 나을 수가 있겠는가?  
(후    락)

이 시에서는 겨울에 출발하였으나 봄이 되었어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적은 애주가였으나 술보다 차가 더 낫다고 한 것이다.

다음은 이상적이 손수 차를 끓이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 시이다.

<夜坐口占><sup>63)</sup> 64)  
밤에 앉아 지은 즉흥시  
小鑪文火手煎茶      작은 화로의 문화(문화; 약한 불)에 차를 끓이네  
落月娟娟竹外斜      지는 달은 밝고 환하게 대나무 밖에서 비추이고  
半夜紙窓春氣暖      한밤중 지창(종이창)으로 봄기운이 따스하여

62) 李尙迪, 『恩誦堂集』 續集 詩卷六, p.281. <黃州途中>

63) 詩를 지을 때는 종이에 쓰면서 詩句를 다듬는 것이 보통인데, 口占이란 腹案으로 된 詩를 입으로 그대로 불러주어 사람에게 받아쓰게 하는 것을 말한다.

64) 李尙迪, 『恩誦堂集』 詩卷九, p.199. <夜坐口占>

水仙初枋一囊花 수선화는 꽃봉오리가 막 터지려 하네<sup>65)</sup>

그는 작은 화로를 썼으며 문화(文火; 은근한 불)로 차를 끓였다.

옛날에는 나무나 숯을 사용해서 불을 피웠고, 또 주로 차를 끓는 물에 넣어 끓여서 마셨으므로 불길을 잘 다스리는 일은 매우 중요하였다. 문무화(文武火)가 고르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는데 문화(文火)는 약한 불이고 무화(武火)는 센 불로서, 세지도 약하지도 않게 화력이 고루 다스려져 생기있는 불을 말한다.<sup>66)</sup>

윗글에서 끓이는 화덕으로 소로(小爐)를 썼으며, 수선화를 다석화(茶席花)로 썼음을 짐작할 수 있다. 찻자리의 수선화는 자하 신위의 <起><sup>67)</sup>에서도 볼 수 있다.

그 밖에 이상적이 손수 차를 끓였음을 알 수 있는 시는 <江州途中><sup>68)</sup>, <金小棠惠富士山茶及茶壺 皆日本物也><sup>69)</sup>, <不寐懷天行><sup>70)</sup>이 있다.

### (3) 찻물 끓이기와 불 다루기

이상적인 다음의 시에서 찻물 끓는 소리를 송도(松濤)라고 표현하고 있다.

<松濤><sup>71)</sup>

솔물결 소리

風湍一碧月孤明

바람 여울에 푸른 달이 외롭게 밝고,

五粒颼颼鶴夢驚

오엽송(五葉松, 잣나무) 우수수 바람 소리에 학은 놀

65) 정영선 譯

66) 정영선, 『한국茶文化』, 서울: 너럭바위, 1990, p.272.

67) 자하 신위 저, 권경렬 편역, 『다옥에 손님오니 연기가 피어나네』, 서울: 너럭바위, 1998, p.20. <起> …一夜水仙花錯認…

68) 李尙迪, 『恩誦堂集』 詩卷十, p.204. <江州途中> …清泉手煮茶…

69) 李尙迪, 『恩誦堂集』 續集 詩卷二, p.261. <金小棠惠富士山茶及茶壺 皆日本物也> …手煎新茗滌煩惱…

70) 李尙迪, 『恩誦堂集』 續集 詩卷八, p.299. <不寐懷天行> …懸燈手煮茶…

71) 李尙迪, 『恩誦堂集』 詩卷九, p.200. <松濤>

라 꿈을 깨네.

滿院如聞秋水至 <sup>72)</sup>	집 가득히 가을의 물소리 들리는 듯
空山忽訝晚湖生	빈 산에 갑자기 晚湖가 생겼는가 의아하네
琴徽細入新調曲	琴徽는 잔잔히 새 곡조에 접어들고
茶銚淸分一沸聲	茶銚에 물 끓는 소리 맑게 들린다
遙憶故人江上屋	멀리 故人的 江上的 집이 생각나서
著書消受歲寒情	글쓰며 歲寒의 정을 되새긴다네.

이상적(李尙迪)은 차술에서 물 끓는 소리를 솔물걸 소리로 듣고 있는 것이다. 위 글의 마지막에서 “...茶銚淸分一沸聲 遙憶故人江上屋 著書消受歲寒情”라고 한 것은 차술에서 끓는 물소리는 들으면서 한강 가에 살던 추사 김정희를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아래의 시에서는 찻물 끓는 소리를 송풍(松風)으로 묘사했음을 알 수 있다.

<金小棠惠富士山茶及茶壺 皆日本物也><sup>73)</sup> (2首) 중 (二)  
 金小棠이 富士山茶와 茶壺를 주었다. 모두 일본물건이다.  
 (二)  
 卵色瓷壺天下一 달갈색 瓷器병은 천하제일인데,  
 手煎新茗滌煩惱 손수 새 차를 끓이니 가슴의 번뇌가 씻기네.  
 松風活火深深夜 松風에 불을 피워 밤은 깊어가는데,  
 似聽殘湖海上音 마치 바다 위 殘湖소리가 들리는 것 같구나.

다음의 <茶煙, 차 끓이는 연기><sup>74)</sup> 이라는 시에서는 활화(活火) 즉, 생기있는 불

---

72) 추수(秋水)는 옥편에 ①가을철의 맑은 물. ②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③ ‘神色이 맑고 깨끗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④ 거울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⑤ ‘맑은 눈매’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73) 李尙迪, 『恩誦堂集』 續集 詩卷二, p.261. <金小棠惠富士山茶及茶壺 皆日本物也>  
 74) 李尙迪, 『恩誦堂集』 詩卷九, p.201. <茶煙>

로서 눈물(雪水)을 끓였다.

竹鑪石銚雅相宜      竹鑪와 石銚는 서로 어울려 아름답고  
活火新烹雪水時      타는 불에 눈 녹은 물로 새로이 끓인다네  
(후 략)

#### (4) 다서(茶書)의 섭렵

차에 관한 역사나 문헌은 단연코 중국이 첫 손가락에 꼽힐만큼 오래고 풍부한 것임은 새삼 말할 나위도 없다. 그 중에서도 당의 육우가 엮은 《다경(茶經)》 3권은 가장 알려진 고전으로 오늘에까지 귀하고 보배롭게 읽혀지고 있다. 《은송당집(恩誦堂集)》을 살펴보면 이상적(李尙迪)이 《다경(茶經)》과 노동의 다가를 읽었음을 알 수 있는 시가 몇 편 있다.

다음은 <臨漢亭><sup>75)</sup>이라는 시이다.

(전 략)  
石泉新汲供清瀹      석천의 물 새로 길어다 맑은 차 끓이니  
陸羽經中品酪奴      육우의 다경 가운데 품격은酪奴라네

우선(藕船)은 《다경(茶經)》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 여기에서 우선(藕船)은 차 끓일 물로 석천(石泉)을 사용하였고 차 우리는 것을 '약(瀹)'이라 하였다. 위의 낙노(酪奴)는 차의 다른 이름이다.

다음의 시에서도 이상적이 《다경(茶經)》을 읽었음을 알 수 있다.

<挹 茶><sup>76)</sup>

---

75) 李尙迪, 『恩誦堂集』 詩卷一, p.170. <臨漢亭>

(전 략)

經傳陸羽燈	육우는 다경으로 등불을 전했고
詩呪玉川鉢	노동은 茶歌를 읊어 바릿대를 준 것이라네

다음의 시에서도 《다경》을 곁에 두고 읽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白山茶歌 謝朴景路><sup>77)</sup>

(전 략)

歸臥敝廬談龍肉	돌아와 허술한 집에 숨어 살면서 용육을 이야기하고
手把茶經空咨嗟	다경을 손에 잡고 헛되이 한숨 쉬며 한탄하네

(후 략)

우선 이상적의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세기에 다인(茶人)들이 육우의 《다경(茶經)》을 읽고 섭렵하는 일이 흔히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 (5) 중양절의 낚다

중양절 다음 날 이상적은 아래의 시를 썼는데 중구일에 녹차를 시험한 것으로 보아 그의 다인으로서의 경지를 가늠할 수 있다.

‘중양절’은 음력으로 9월 9일을 중구 또는 중양이라고 한다. ‘중구’란 말은 9가 겹쳤다는 뜻이며, ‘중양’이란 양수가 겹쳤다는 뜻이다.<sup>78)</sup>

<重陽之翌 過三台山莊><sup>79)</sup>

중양절 다음 날. 삼태 산장에 들르다.

76) 李尙迪, 『恩誦堂集』 詩卷二, p.174. <挹茶>

77) 李尙迪, 『恩誦堂集』 續集 詩卷一, p.254. <白山茶歌 謝朴景路>

78) 임재택외 4명, 「선생님! 세시풍속이 뭐예요?」, 양서원, 2001, p.149.

79) 李尙迪, 『恩誦堂集』 詩卷八, p.198. <重陽之翌 過三台山莊>

我來展重九	내가 온 것이 바로 9월 9일인데,
菊未有黃華	국화는 아직 노랗게 핀 것이 없네.
林暖收紅柿	임야는 따뜻하여 紅柿를 거두고,
泉香試綠茶	샘물 향기로이 綠茶를 시험하네.
何妨近城市 <sup>80)</sup>	城市가 가까운들 무슨 상관 있는가?
卽此是山家	곧 이 곳이 바로 山家로다.
少酌耽佳趣 <sup>81)</sup>	조금 술 마시고 佳趣에 탐닉하여,
留連坐蒼鴻	머뭇거리며 저녁 까마귀와 앉아 있네.

9월 9일은 신라시대부터의 명절로서 고려 때도 국가적인 행사였고 조선시대에는 기로연(耆老宴)을 베풀고 특별과거시험도 치루었으며 민가에서는 국화전이나 화채를 만들어 먹고 차례를 지냈다. 또 중앙 놀이라 하여 궁정에서나 선비들이 교외로 나가 시를 짓고 그림도 그리면서 하루를 즐겼다.<sup>82)</sup>

위 글의 성시산림(城市山林)이란 성벽 도시 속에서 맛보는 산림의 정취를 가리키는 말이다.<sup>83)</sup>

자하(紫霞) 신위(申緯)도 <重陽日(음력 구월 구일에)><sup>84)</sup> 이라는 시가 있다.

## (6) 龍團勝雪의 기록

다음의 글에서는 대원군(大院君) 석파(石坡) 이하응(李昞應, 1820~1898)이 호서(湖西, 충청도) 덕산현(德山縣)으로 성묘(省墓)를 갔다가 고려(高麗) 때의 고탑(古塔)을 찾아가 다른 물품과 함께 얻은 용단승설(龍團勝雪) 네 과(銖) 중 이상적(李尙迪)이 한 과(銖)를 얻어서 소장하게 된 용단승설(龍團勝雪)에 대해서 기록하고

80) 城市(성시)는 성벽이 있는 시가 혹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시가, 城府를 말한다.

81) 佳趣(가취)는 좋은 취미 혹은 재미있는 흥취를 일컫는다.

82) 정영신, 『한국 茶文化』, p.102.

83) 김명배, 전계서, p.299.

84) 신위 저, 권경렬 편역, 전계서, p.51.

있다. 이 내용은 한국 음다문화사와 당시의 실학적 학풍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아래에 전문을 적고자 한다.

<記龍團勝雪><sup>85)</sup>

용단승설을 기록하다.

龍團一銖. 面作團龍形. 鱗鬣隱起. 側有勝雪二字. 楷體陰文. 度以建初尺. 方一寸厚半之. 近者石城李公省掃干湖西之德山縣. 訪高麗古塔. 得小銅佛泥金經帖. 舍利子沈檀珍珠之屬. 與龍團勝雪四銖焉. 近余獲其一而藏之. 按歐陽公歸田錄. 慶歷間蔡君謨始造小品龍茶以進. 謂之小團. 潛確類書宣和庚子. 漕臣鄭可簡創爲銀線水芽. 以制方寸新銖. 有小龍蜿蜒其上. 號龍團勝雪. 又按高麗圖經. 高麗土俗茶味苦澀. 不可入口. 惟貴中國蠟茶并龍鳳賜團. 自錫賚之外. 商賈亦通販. 故邇來頗喜飲茶. 亦治茶具. 蓋仁宗時已有小龍團. 惟勝雪之名. 昉於徽宗宣和二年. 而徐兢卽宣和五年癸卯. 奉使東來者. 其於中外俗尚及物產. 固已殫見洽聞. 故言之如是. 且麗僧義天指空洪慶如可輩後先航海. 問道求經. 往來宋朝者項背相望. 文獻有徵. 干時此類必爭購名茶. 以供佛事. 甚至錮諸石塔. 歷七百有餘年而復出於世. 吁亦奇矣. 然凡物之最易腐敗斯滅者. 莫先於飲食之需. 而迺有頭綱<sup>86)</sup>一種. 流傳東土. 壽齊白鷹之畫. 珍逾瘦金之泉. 余舊藏宣和畫鷹及崇寧重寶<sup>87)</sup>數枚卽徽宗御書瘦金體者. 至今爲藝林雅賞. 豈其有神物護持. 陰相余嗜古之癖歟. 爰證故實. 以公同好.

용단승설(龍團勝雪) 한 덩어리(銖)는 정면은 단룡(團龍)의 형상을 하고 있고 비늘과 수염이 은은하게 일어나 있으며, 옆에는 승설(勝雪)이라는 두 글자가 있는데 헤정(楷正)한 글자체로 음각(陰刻)이 되어 있다. 건초적으로 제어 보니 사방 일촌이고 두께는 그 반이다. 근자에 석파 이공이 호서의 덕산 현에 성묘하러 갔다가 고려의 고탑에 들렀는데, 작은 구리불상과 금을 입힌 경첩, 사리자, 심단, 진주 따위와 용단승설 네 덩어리를 얻었다. 근래에 내가

85) 李尙迪, 『恩誦堂集』 續集 文券一, p.225. <記龍團勝雪>

86) 頭綱(두강)은 차의 이름으로 《북원다록(北苑茶錄)》에 “백차(白茶)와 승설(勝雪)은 경첩(驚蟄) 전에 따서 경사(京師)에 올라오므로 두강옥아(頭綱玉芽)라 일렀다.” 하였다.

87) 崇寧重寶(송녕중보)는 엽전의 일종이다.

그 하나를 얻어서 간직하고 있었다. 구양공의 《귀전록(歸田錄)》을 살펴보면, "경력 연간에 채군모가 비로소 소품 용차를 만들어 바쳤는데, 이를 소단이라 하였다." 하였다. 《잠확류서(潛確類書)》에는 "선화(宣和) 경자년에 조신(漕臣) 정가간(鄭可簡)이 처음으로 은선수아(銀線水芽)라는 것을 만들고 그것으로써 사방 한 치의 새로운 덩어리를 만들었는데, 작은 용이 그 위에서 꿈틀대고 있었으므로 용단승설이라고 불렀다." 하였다. 또 《고려도경(高麗圖經)》을 살펴보면, "고려의 토산(土山)은 차 맛이 쓰고 뚝아서 입에 댈 수가 없다. 오직 중국의 납차(蠟茶)와 용봉사단(龍鳳賜團)을 귀하게 여기는데, 중국에서 하사하는 것 외에 상인들도 가져다 판매하였다. 그래서 그 후로는 자못 차를 마시기를 즐겨하였으며, 또한 다구를 마련하였다." 하였다. 대개 인종 때에 이미 소룡단이 있었다. 다만 승설이라는 이름은 휘종 선화 2년에 비로소 시작되었고, 서공은 곧 선화 5년 계묘에 사신이 되어 동쪽으로 온 자이다. 중외의 풍속과 물산에 대해서는 이미 익숙히 들었을 것이므로 이와 같이 말한 것이다. 또 고려의 스님인 의천, 지공, 홍경(洪慶), 여가의 무리들이 전후로 바다를 건너 도를 묻고 경서를 구하느라 송조에 왕래한 것이 끊임없이 계속되었음은 문헌에 증거가 있다. 그 때에 이들이 필시 다투어 명차를 구입하여 불사에 올리고 심지어는 석탑에 갈무리 해 두었을 것인데, 칠백여년이 지나서야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아아, 또한 기이하다. 그러나 무릇 물건 중에서 가장 쉽게 부패하여 스러지는 것으로는 음식물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한 종의 두강(頭綱)이 동토로 흘러들어 백웅(白鷹)의 그림처럼 수(壽)를 누리고 수금(瘦金)의 샘물보다 진귀하게 되어 (나는 옛날에 선화(宣和) 연간에 그런 때 그림과 송녕중보(崇寧重寶)를 몇 매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휘종(徽宗)의 어서(御書)인 수금체(瘦金體)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예림의 좋은 완상거리가 되었다. 아마도 신물이 보우하여 은연중에 옛것을 좋아하는 나의 벽(癖)을 도와준 것이 아니겠는가? 옛 사실들을 끌어다 증거로 삼아 동호인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sup>88)</sup>

위에서 이상적(李尙迪)은 《귀전록(歸田錄)》, 《잠확류서(潛確類書)》를 상고

88) 권경렬 譯

(詳考)하여 용단승설(龍團勝雪)의 유래에 대하여 조사, 기록하고 《고려도경(高麗圖經)》을 상고하여 용단승설(龍團勝雪)이 고려(高麗)의 고탑(古塔)에서 발견된 경위를 설명하고 7백여 년이 지나 다시 세상에 나온 것을 감탄하고 있다. 당시에 이상적이 7백여 년 전의 유단차를 구하고 얼마나 감격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 글에서 그의 차에 대한 지대한 애정과 관심을 엿볼 수 있고 또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그의 실학적 학풍이 잘 드러나 있다.

다음의 시에는 승설(勝雪)이 언급되었다.

<秋懷雜詩><sup>89)</sup> (8首) 중 (八)

(전 략)

瓦當借拓長生字	瓦當을 빌려서 長生字를 拓本하고
茶品傳看勝雪名	茶品을 전하여 勝雪의 이름을 보네.
海內親朋同好古	국내의 친구들이 함께 옛 것을 좋아하니
少時風雅更關情	少時적의 風雅함이 다시 마음에 걸리네.

(후 략)

승설(勝雪)이라 함은 다유(茶乳)가 눈보다 흰 좋은 차라는 뜻으로 짐작된다.<sup>90)</sup>

### (7) 제사 茶禮를 행함

다음 시의 제목에서는 제사다례를 지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頃得子梅去秋書 言仲遠殉節於楚 爲之慟畫者彌日 適於李夏九日 仲遠覽揆之辰 供仲遠畫象硯 茶酒以尊之><sup>91)</sup>

89) 李尙迪, 『恩誦堂集』 續集 詩卷一, P.252. <秋懷雜詩> 8首

90) 정영신, 『한국 茶文化』, p.130.

91) 李尙迪, 『恩誦堂集』 續集 詩卷二, p.258. <頃得子梅去秋書 言仲遠殉節於楚 爲之慟畫者>

저번에, 지난 가을에 부친 子梅의 편지를 받았다. 仲遠이 楚에서 殉節하였다고 말하였다. 여러 날 슬퍼하였고, 이내 6월 9일 仲遠의 生日날에 仲遠의 畫像, 벼루, 茶와 술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냈다.

여기서는 문우의 죽음을 자매로부터 전해듣고 그 죽음을 애도하며 죽은 이의 생일날 차와 술로 차례를 지낸 내용이다. 차(茶)로써 다례(茶禮)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청의 완문달의 생일에 축하 다례를 지낸 내용이다.

<阮文達<sup>92)</sup>公畫象贊 有序><sup>93)</sup>

완문달공화상찬

阮文達公畫象. 刻于廣州學海堂. 拓本甲寅春. 公次子賜卿明府自日下寄贈. 近者命霖兒重模之. 以今二十日. 祝公生辰於竹牖下. 煎茶享之. 蓋取公嘗於是日. 每避客作竹林茶隱之意也. 贊曰雲臺山高. 萬里仰止. 其神如水. 斯道東矣. 玉琢金相. 含章懷寶. 二百年來. 經師人表<sup>94)</sup>. 展也大成. 著書萬卷. 聲氣之感. 遐邇無間. 月正念日. 嶽降舊辰<sup>95)</sup>. 溪館晴雪. 竹翠生春. 避客茶隱. 彷彿遺型. 眼光雙注. 視我則青.

阮文達公의 畫象을 廣州 學海堂에 새겼다. 拓本은 甲寅年 봄에 公의 次

彌日 適於李夏九日 仲遠覽揆之辰 供仲遠畫象硯 茶酒以尊之>

92) 阮文達(완문달)은 阮元, 淸, 儀徵人이다. 字는 伯元(良伯). 號는 芸臺(芸台·雲臺). 또 研經老人, 節性老人, 怡性老人(頤性老人). 諡號가 文達이다. 乾隆의 進士. 嘉道兩朝에서 農兵戶工 등 部의 侍郎을 거쳐 浙閩贛粵의 諸省巡撫使 및 湖廣·兩廣·雲南總督을 歷官하고 體仁閣大學士에 이르고 太傅을 加職하였다. 中外에 歷官하면서 學術提唱者로 自任하고, 史館에 있어서는 儒林傳을 倡修하고, 粵에 있어서는 學海堂을 짓고, 浙에 있어서는 詁經精舍를 지었다. 또 經籍纂詁를 纂輯하고 十三經注疏를 校刊하고 學海堂 經解 등의 책을 彙刻하였고, 그 밖에 擘經室集이 있다. [淸史稿, 370]

93) 李尙迪, 『恩誦堂集』 續集 文券二, p.243. <阮文達公畫象贊 有序>

94) 經師(경사)는 경서를 주해하여 도움이 된 현인, 즉 주자 같은 분을 가리키고, 人表(인표)는 사람들의 표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95) 嶽降舊辰(악강구신)은 산악의 기운을 받아 큰 인물이 태어났던 그 때라는 뜻이다.

子 賜卿 明府가 日下(京師)로부터 寄贈한 것이다. 近者에 霖兒에게 命하여 다시 이를 拓模하고 이달 20日에 竹窓 아래서 公의 生辰을 祝賀하고, 茶를 끓여서 올렸다. 대개 公이 전에 이 날이면 늘 來客을 피하여 竹林茶隱이 된 뜻을 取한 것이다. 贊하여 이르기를, 靈臺의 山이 높으니 萬里에서 우러러 보네. 그 精神은 물과 같아서 이 道가 동쪽으로 왔네. 玉으로 다듬은 金相은 빛을 머금고 보배를 품으셨네, 二百年來, 經은 사람의 師表되셨네. 펼쳐서 大成하시고 著書는 萬卷이네. 聲氣에 感應함은 遠近의 差異가 없네. 正月 20日是 山嶽의 氣가 내려온 舊辰이네. 溪館은 눈이 그치고, 대나무 푸른 빛에 봄기운이 생기네. 來客을 피하여 茶隱이 되시니 遺型이 彷彿하네. 眼光을 두 줄기로 쏘아지니, 나를 靑眼으로 보시네.

생일이면 내객을 피해 ‘죽림다은(竹林茶隱)’이 되는 완문달의 인품을 묘사하고 이상적이 존경을 표하고 있다. 여기서 ‘청안(靑眼)’이란 반가운 마음으로 대하는 눈을 이르는 말로 완문달 역시 이상적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국경을 넘나든 그들의 교류를 알 수 있다.

#### 4. 《恩誦堂集》에 나타난 茶道文化 관련 용어

##### (1) 茶名

《은송당집(恩誦堂集)》에 나타난 차의 표기는 주로 ‘茶’자를 사용하고 있으나 <金小棠惠富士山茶及茶壺. 皆日本物也.><sup>96)</sup>에서는 ‘茗’자를 사용하고 있다.

차의 이름으로는 ‘녹차(綠茶)’<sup>97)</sup>, ‘용단승설(龍團勝雪)’<sup>98)</sup>, ‘승설(勝雪)’<sup>99)</sup>, ‘백산차

96) 李尙迪, 『恩誦堂集』 續集 詩卷二, p.261. …卵色瓷壺天下一 手煎新茗滌煩惱…

97) 李尙迪, 『恩誦堂集』 詩卷八, p.198. <重陽之翌 過三台山莊> …林暖收紅柿 泉香試綠茶…

(白山茶)<sup>100</sup>, '죽로(竹露)<sup>101</sup>, '무이차(武夷茶)<sup>102</sup>, '강남어차(江南御茶)<sup>103</sup>, '부사산차(富士山茶)<sup>104</sup>, '송차(淞茶)<sup>105</sup>, '녹설아(綠雪芽)<sup>106</sup>가 있다.

## (2) 물과 불

차 끓일 물로는 '석천(石泉)<sup>107</sup>, '설수(雪水)<sup>108</sup>, '중영수(中冷水)<sup>109</sup>가 나타난다. 그리고 차 끓일 때 쓰이는 불로는 '문화(文火)<sup>110</sup>와 '활화(活火)<sup>111</sup>를 볼 수 있다.

## (3) 차 끓임의 용어

차를 끓인다는 뜻의 용어로는 '약(瀹)<sup>112</sup>, '전(煎)<sup>113</sup>, '팽(烹)<sup>114</sup>, '자(煮)<sup>115</sup>를

- 
- 98) 李尙迪, 『恩誦堂集』 續集 文券二, p.225. <記龍團勝雪> 龍團一鎊 面作團龍形…
- 99) 李尙迪, 『恩誦堂集』 續集 詩卷一, p.252. <秋懷雜詩> …瓦當借拓長生字 茶品傳看名…
- 100) 李尙迪, 『恩誦堂集』 續集 詩卷一, p.254. <白山茶歌 謝朴景路>
- 101) 李尙迪, 『恩誦堂集』 續集 詩卷一, p.254. <白山茶歌 謝朴景路> …湖僧竹露(茶名)出新製…無勞遠購武夷芽…君不見江南御茶不入貢…
- 102) 위와 상동.
- 103) 위와 상동.
- 104) 李尙迪, 『恩誦堂集』 續集 詩卷二, p.261. <金小棠惠富士山茶及茶壺 皆曰日本物也>
- 105) 李尙迪, 『恩誦堂集』 續集 詩卷七, p.289. <蝶菴比部寄餉淞茶> 白甌封題綠雪芽…
- 106) 위와 상동.
- 107) 李尙迪, 『恩誦堂集』 詩卷一, p.170. <臨漢亭> …石泉新汲供清瀹 陸羽經中品酪奴
- 108) 李尙迪, 『恩誦堂集』 詩卷六, p.192. <余久病憫寒 堂宇疎冷 新設障格 因題其上> …若將世味商濃淡 羔酒終輸雪水茶…
- 李尙迪, 『恩誦堂集』 詩卷九, p.201. <茶煙> 竹鑪石銚雅相宜 活火新烹雪水時…
- 109) 李尙迪, 『恩誦堂集』 續集 詩卷一, p.254. <白山茶歌 謝朴景路> …譬如人才出荒遐 但恨難得中冷水…
- 110) 李尙迪, 『恩誦堂集』 詩卷九, p.199. <夜坐口占> 小鑪文火手煎茶…
- 111) 李尙迪, 『恩誦堂集』 詩卷九, p.201. <茶煙> 竹鑪石銚雅相宜 活火新烹雪水時…
- 李尙迪, 『恩誦堂集』 續集 詩卷二, p.261. <金小棠惠富士山茶及茶壺 皆曰日本物也> …松活火深深夜…

사용하였다.

#### (4) 茶具

이상적(李尙迪)은 탕관으로는 '다요(茶銚)'<sup>116</sup>, '석요(石銚)'<sup>117</sup>를 사용하였고, 잔은 '완(盃)'<sup>118</sup>과 '완(椀)'<sup>119</sup>을 사용하였으며, 화로는 '소로(小鑪)'<sup>120</sup>, 그리고 '죽로(竹鑪)'<sup>121</sup>를 사용하였다. 다호(茶壺)인 일본산 '자호(瓷壺)'<sup>122</sup>와 백추(白甌)<sup>123</sup>에 봉해진 '녹설아(綠雪芽)'를 선물 받았다.

#### (5) 기타

- 
- 112) 李尙迪, 『恩誦堂集』 詩卷一, p.170. <臨漢亭> …石泉新汲供清淪 陸羽經中品酪奴
- 113) 李尙迪, 『恩誦堂集』 詩卷九, p.199. <夜坐口占> 小鑪文火手煎茶 落月娟娟竹外斜…  
李尙迪, 『恩誦堂集』 續集 文券二, p.243. <阮文達公畫象贊 有序> …祝公生辰於竹牖下. 煎茶享之…  
李尙迪, 『恩誦堂集』 續集 詩卷二, p.261. <金小棠惠富士山茶及茶壺 皆曰本物也> …卯色 瓷壺天下一 手煎新茗滌煩惱…
- 114) 李尙迪, 『恩誦堂集』 詩卷九, p.201. <茶煙> 竹鑪石銚雅相宜 活火新烹雪水時…
- 115) 李尙迪, 『恩誦堂集』 詩卷十, p.204. <江州途中> …清泉手煮茶…  
李尙迪, 『恩誦堂集』 續集 詩卷八, p.299. <不寐懷天行> …懸燈手煮茶…
- 116) 銚(요)는 전이 없는 냄비이다. 초두(鑪斗)와 같이 자루손잡이가 있는 작은 두구리도 요(銚)라고 하였다.  
李尙迪, 『恩誦堂集』 詩卷九, p.200. <松濤> …琴徽細入新調曲 茶銚清分一沸聲…
- 117) 李尙迪, 『恩誦堂集』 詩卷九, p.201. <茶煙> 竹鑪石銚雅相宜 活火新烹雪水時…
- 118) 李尙迪, 『恩誦堂集』 詩卷二, p.174. <搨茶>
- 119) 李尙迪, 『恩誦堂集』 續集 詩卷二, p.261. <金小棠惠富士山茶及茶壺 皆曰本物也> …可憐秦帝求靈藥 爭似先生一椀茶…
- 120) 李尙迪, 『恩誦堂集』 詩卷九, p.199. <夜坐口占> 小鑪丈火手煎茶 落月娟娟竹外斜…
- 121) 李尙迪, 『恩誦堂集』 詩卷九, p.201. <茶煙> 竹鑪石銚雅相宜 活火新烹雪水時…
- 122) 李尙迪, 『恩誦堂集』 續集 詩卷二, p.261. <金小棠惠富士山茶及茶壺 皆曰本物也> …卯色瓷壺天下一 手煎新茗滌煩惱…
- 123) 李尙迪, 『恩誦堂集』 續集 詩卷七, p.289. <蝶菴比部寄餉淞茶> 白甌封題綠雪芽 郵筒迢遞返星槎…

그 밖에 그의 시문에서는 ‘학(鶴)’<sup>124</sup>과 ‘거문고’<sup>125</sup>가 등장하고, 다실(茶室)을 장식하는 ‘비취금병풍(翡翠金屏風)’<sup>126</sup>과 ‘매화(梅花)를 그린 지장(紙帳)’<sup>127</sup>을 찾을 수 있으며, 다석화(茶席花)로는 ‘매화(梅花)’, ‘수선화(水仙花)’를 썼으며, <白山茶歌. 謝朴景路.><sup>128</sup>에는 ‘다화도(茶話圖)’가 보인다. 그리고 제사를 뜻하는 ‘다례(茶禮)’<sup>129</sup>도 나타난다.

124) 李尙迪, 『恩誦堂集』 詩卷九, p.200. <松濤> 風湍一碧月孤明 五粒颼颼鶴夢驚…

125) 李尙迪, 『恩誦堂集』 文券二, p.218. <謝金秋史閣學贈蘭啓> …茶烟一榻 蕉雪半牕…起  
新嘆於琴操一時

126) 李尙迪, 『恩誦堂集』 詩卷六, p.192. <余久病憫寒 堂宇疎冷 新設障格 因題其上>(2首)  
…翡翠金屏望太奢 梅花紙帳分堪誇…

127) 위와 상동.

128) 李尙迪, 『恩誦堂集』 續集 詩卷一, p.254.

129) 李尙迪, 『恩誦堂集』 續集 文券二, p.243. <阮文達公畫象贊 有序>

李尙迪, 『恩誦堂集』 續集 詩卷二, p.258. <頃得子梅去秋書 言仲遠殉節於楚 爲之慟畫  
者彌日 適於李夏九日 仲遠覽揆之辰 供仲遠畫象硯 茶酒以尊之>

## IV. 국내 茶人들과의 文化的 交遊

한국 다문화(茶文化)의 중흥시대라 불리우는 조선 말엽에는 선비와 승려를 중심으로 음다 풍속이 성하였다. 이상적(李尙迪)의 음다생활(飲茶生活)은 부친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다. 중인이었던 아버지 이정직(李廷稷, 1781~1816)은 다시(茶詩)를 많이 남긴 조수삼(趙秀三, 1762~1849)과 절친했다. 조수삼이 쓴 다시로는 <古董老人>, <邀同社遊山寺> 등이 있다.<sup>130)</sup>

《은송당집(恩誦堂集)》에서는 이상적(李尙迪)이 국내외의 많은 인사들과 교유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그 중 자하(紫霞) 신위(申緯)와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해거(海居) 홍현주(洪顯周) 등과의 교유를 살펴본다.

### 1. 紫霞 申緯와의 交遊

자하(紫霞) 신위(申緯, 1769~1847)는 그 당시 실학자 및 선승들과 시(詩)·서(書)·화(畫)를 통하여 폭넓은 교유를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그의 시집인 《경수당전고(警修堂全藁)》의 시문을 통하여 살펴 볼 수 있다. 그는 이 시집에 약 4천수나 되는 한시를 남겼는데 이 중 다시(茶詩)에 관한 것이 110여수 포함되어 있다.<sup>131)</sup> 우리 나라 역대 문장가들 중에서 가장 많은 다시(茶詩)를 남긴 인물이며 시·서·화 삼절로도 이름났던 신위는 당파와 종교를 초월해 많은 인물들과 교유하였고 다도 생활의 깊이와 성찰을 통해 다도관을 새로운 작품세계의 창작의

130) 천병식, 『한국의 茶詩』, 아주대학교 출판부, 1996, p.155~161.

131) 신위 저, 권경렬 편역, 전계서, p.214.

원동력으로 삼았으며 음다의 풍류를 즐기던 대다인(大茶人)이었다.<sup>132)</sup>

1832년 이상적(李尙迪)은 자하(紫霞)와 인연을 맺게 된다.

《은송당집(恩誦堂集)》에서 자하(紫霞)와의 교유를 살펴보면 이상적(李尙迪)은 자하(紫霞)가 <小樂府> 40수를 짓자 <紫霞侍郎作樂府四十章見貽. 題其尾.><sup>133)</sup> 3수(首)를 지어 칭송했고, 신위는 이 작품을 읽고 <藕船題余小樂府 三絕句 皆佳 卽次原韻 亦三首>를 지었는데, 이 때가 <小樂府>를 완성한 다음해인 1832년 9월 이었다.<sup>134)</sup>

또 이상적(李尙迪)이 자하(紫霞)의 평신진첨사(平薪鎭僉使) 제수(除授)를 받들어 시를 올리자 신위(申緯)는 답시(答詩)를 지어보냈다. 여기서 신위(申緯)는 이상적의 시가 서릉(徐陵)과 경신(庚信)의 옥대신영체(玉臺新詠體)처럼 섬려하고, 심정균(潘庭筠)과 이상은(李商隱)의 서곤체(西崑體)처럼 농염(濃艷)하다고 평하면서, 시를 볼 줄 아는 사람이면 모두 이 작품을 아름답게 여길 것이라고 칭찬하였다.<sup>135)</sup>

1836년 이상적(李尙迪)이 동지사(冬至使) 신재식(申在植)을 따라 입연(入燕)할 때 자하(紫霞)는 곡진한 송별시(送別詩)와 아울러 원매(袁枚)의 《소창방산전집(小倉房山全集)》과 《삼십현심서(三十縣心書)》 1편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sup>136)</sup>, 이외에도 청(淸)의 섭지선(葉志詵)과 왕홍(王鴻) 등의 안부를 부탁하기도 하였다.<sup>137)</sup> 그는 3차 여행을 출발하면서 신위(申緯)의 별장(別章)에 <일생청안취미공(一生靑眼翠微公)>에 차운(次韻)하여 자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sup>138)</sup>

132) 탁효영, 「紫霞 申緯의 飲茶生活에 관한 考察」,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2004, p.2.

133) 李尙迪, 『恩誦堂集』 詩卷三, P.179. <紫霞侍郎作樂府四十章見貽 題其尾>

134) 손팔주, 『申紫霞詩文學研究』, 이우출판사, 1984, p.191.

135) 신위, 『警修堂全藁』, 11冊 56卷. <次韻 答 藕船> (二)

136) 신위, 상계서, 14冊 68卷. <贈別 藕船入燕 二首> (二)

137) 신위, 상계서, 16冊 85卷. <藕船 從上行人別>

138) 李尙迪, 『恩誦堂集』 詩卷五, p.187. <發洞仙館 次申正使翠微韻>

1843년 이상직(李尙迪)이 동지사(冬至使) 이하응(李昞應)을 따라 청(淸)에서 돌아오면서 자하배(紫霞盃)를 구하여 신위(申緯)에게 선물하였는데, 주준고(朱遵古)가 쓴 서문(序文)에 의하면 이 잔은 만병에 유효한 조화배(造化杯)라고 하였다.<sup>139)</sup> 신위(申緯)는 이 자하배(紫霞盃)를 받고 <藕船 贈余紫霞盃 答以一詩><sup>140)</sup>를 지어 고마움을 표했다.<sup>141)</sup>

다음에 <奉送紫霞侍郎補平薪僉使, 자하시랑이 평신첨사로 보임되어 가는 것을 송별하며> 3수(首) 중 첫 번째 수(首)를 소개한다.

<奉送紫霞侍郎補平薪僉使><sup>142)</sup> (2首) 중 (一)

자하시랑이 평신첨사로 보임되어 가는 것을 송별하며

鳳泊鸞飄老更哀      鳳鸞같은 사람이 이리저리 표박하니 늙그막에 더 슬픈데,

文章九命幾窮哉<sup>143)</sup>      문장은 구명인들 어찌 다하겠는가?

黜官古亦多名士      벼슬에서 쫓겨남은 옛날에도 명사에게 많았으니,

知遇原非僅惜才      임금의 知遇는 원래 인재를 아껴서가 아니로세.

春夢消磨還嶺海      춘몽을 消磨하고 嶺海로 돌아가니,

夕陽惆悵又蓬萊      석양에 惆悵한 일이 또 蓬萊로다.

(公嘗以沁都留守辭 陞時. 有細數一生惘悵事. 承華門外夕陽時之句.)

(公은 전에 沁都(江萊) 留守로서 朝廷을 떠날 때, 「細數一生惘悵事. 承華門外夕陽時」라는 詩句를 남긴 일이 있었다.)

也知一障乘邊處      그래서 알겠노라, 한 번 변방을 방위하는 곳에서

吟罷鯨魚手掣回      시를 읊고 나서 大魚를 손수 收復할 것을.

139) 손팔주, 「紫霞의 生涯와 交驩」, 우전신호열선생고회기념논총, p.139.

140) 손팔주, 『신위전집』 V. 4, p.2034. <藕船 贈余紫霞盃 答以一詩>

141) 정후수, 「이상직시문학연구」, p.59.

142) 李尙迪, 恩誦堂集 詩卷三, P.183. <奉送紫霞侍郎補平薪僉使>

143) 九命(구명)은 天子가 諸侯에게 주는 아홉 가지 命을 말한다. [周禮, 春官, 大宗伯] 以九儀之命, 正邦國之位, 壹命受職, 再命受服, 三命受位, 四命受器, 五命賜則, 六命賜官, 七命賜國, 八命賜牧, 九命作伯.

여기서는 자하가 나이들어서 영전되어 떠나는 것이 아님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또 다른 자하와의 교유를 알 수 있는 글은 <人日寄謝紫霞侍郎, 인일에 자하시랑에게 감사하여 올리는 글><sup>144)</sup>이 있다.

그리고 <題小霞墨水山圖, 소하의 묵산수도에 쓰다><sup>145)</sup>에 서문을 보면 “紫霞侍郎과 墨水山圖에 대하여 계획한 바가 있는데, 오래도록 이루지 못하였었다. 문득 산이 다한 곳에 遠峯이 선명하게 높으니, 마치 趙吳興의 鵲華秋色과 비슷하다. 곧 小霞에게 명하여 粉本<sup>146)</sup>을 만들도록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우선 이상적과 자하 신위는 나이 차이가 35세나 됨에도 무척 친밀한 사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秋史 金正喜와의 交遊

### (1) 茶家인 金正喜와 藕船의 인연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는 서화가이며 문신으로 호는 완당(阮堂), 추사(秋史), 예당(禮堂), 시암(詩庵), 과파(果坡), 노과(老果) 외에 차를 무척 좋아하여 다로(茶老), 고정실주인(古鼎室主人), 승설차의 이름을 본딴 승설학인(勝雪學人) 등이 있다.

김정희는 충청우도암행어사, 성균관대사성, 이조참판 등을 역임하였고, 실학과

144) 李尙迪, 『恩誦堂集』 詩卷四, p.184. <人日寄謝紫霞侍郎>

145) 李尙迪, 『恩誦堂集』 詩卷四, p.184. <題小霞墨水山圖> 紫霞侍郎商畧墨水山圖 久而未就忽見山盡處遠峯蒨峭與墨水相對 墨水則天然米家點此遠峯 仿佛趙吳與鵲華秋色矣 乃命小霞亟定粉本

146) 粉本(분본)은 밑그림을 말한다. 胡粉으로 우선 대강을 그리고 나중에 먹칠을 하였다. 畫稿.

에 속했으며 독특한 추사체를 대성시켰는데, 특히 예서와 행서에서 새 경지를 이룩하였다. ‘참선과 차 끓이는 일로 또 한 해를 보냈다’는 말이나 초의에게 써 준 ‘명선(茗禪)’은 그의 생활이 차와 선으로 일관됨을 알 수 있다.<sup>147)</sup>

추사(秋史)는 일찍이 경주인(慶州人)으로 그의 나이 24세 때 부친(父親) 김노경(金魯敬)을 수행하여 당시 청의 거유(鉅儒) 옹방강(翁方綱, 1733~1818)과 완원(阮元) 및 오승량(吳崇梁), 유희해(劉喜海), 섭지선(葉志詵) 등과 사귀어 옹방강(翁方綱)으로부터 ‘經術文章海東第一’이라는 칭찬을 받은 바 있다. 추사는 당시 실학의 제 3기인 실사구시파(實事求是派)의 선두 주자였다. 우선(藕船)은 ‘薄藝多慙 早及門’이라 하여 스스로 추사(秋史)의 제자임을 밝혔다.

이상적(李尙迪)은 그의 나이 28세인 1830년 추사(秋史)의 문하(門下)에 들어가 그와 돈독한 정을 쌓게 된다. 추사의 나이는 45세일 때이다.

## (2) 歲寒圖

1843년 이상적(李尙迪)은 계복(桂馥) 미곡(未谷)의 《만학집(晩學集)》 8권(卷)과 운경(惲敬) 자거(子居)의 《대운산방집(大雲山房集)》 8권을 멀리 북경(北京)에서 구해 김정희(金正喜)에게 보냈으며, 이듬해엔 하장령(賀長齡) 우경(藕耕)의 《황청경세지편(皇淸經世之編)》 120권(卷)을 부치는 등 제주에 유적(流謫)되어 있는 김정희(金正喜)를 극진히 위로하였다. 당시 추사(秋史)는 정치적으로 몰락한 상태였다. 이러한 이상적(李尙迪)의 노력과 스승 김정희(金正喜)를 향한 한결같은 마음이 전달되자, 김정희는 그의 신의(信義)에 감동하여 송백(松柏) 네 그루가 서 있는 설옥(雪屋)을 그려 《세한도(歲寒圖)》라 제(題)하고 ‘藕船是賞阮堂(우선에게 상으로 줌. 완당)’이라 쓴 뒤 발문(跋文)을 써서 이상적(李尙迪)에게 주었다.<sup>148)</sup>

147) 정영선, 『한국茶文化』, p.251.

148) 이영숙, 진계논문, p.10.

이 제발(題跋)은 이상적(李尙迪)과 추사(秋史)의 관계를 밝히는 자료이므로 다음에 그 전문을 밝힌다.

지난해(憲宗 9년:1843)는 《만학집(晩學集)》과 《대운산방문고(大雲山房文藁)》의 두 책을 부쳐왔고, 올해는 우경(耦耕)의 《황청경세문편(皇淸經世文編)》을 부쳐왔다. 이는 모두 세상의 혼한 책들이 아니라, 천만의 먼 곳(北京)에서 사들인 것으로 몇 해를 걸쳐서 구한 것이지 졸지에 얻어진 것이 아니다. 또한 세상의 밀물 같은 풍조는 오직 권세와 이득에 귀속시키지 않고, 바다 밖에 귀양온 초라하고 쓸쓸한 자에게 귀속시키기를, 세상의 권세와 이득에 쏠리는 것과 같이 하다니, 저 태사공(司馬遷)이 〈권세과 이득으로써 야합한 자는 권세와 이득이 다해 지면 교분이 성글어진다〉 고 했는데 그대 역시 세상의 밀물 같은 풍조 속의 한 사람으로서, 초연히 스스로 특출하여 밀물 같은 풍조의 권세와 이득 밖에 있으니, 아니 나를 권세와 이득으로 본 단 말인가? 태사공의 말이 잘못이란 말인가?

공자는 ‘날씨가 추운 연후에야 소나무 잣나무의 잎이 시들음이 뒤짐을 안다.’ 고 했다. 사실 소나무 잣나무는 사철을 통해 잎이 시들지 않아 날씨가 추운 이전에도 한 소나무 잣나무요, 날씨가 추운 이후에도 같은 소나무 잣나무다. 그런데 성인(孔子)은 특별히 날씨가 추운 이후를 지칭했으니, 이제 그대는 내게 대해 전이라고 더함도 없고, 후라고 덜함도 없다. 그렇다면 전의 그대야 지칭할 수 없지만 후의 그대는 역시 성인에게서 지칭한 한갓 시들음이 뒤지는 곧은 절조와 굳은 절개를 위했을 뿐 아니라, 역시 날씨가 추운 시절에 마음에 느껴 사무침이 있어서다. 아야! 서한의 인심이 순박하고 후한 시대에 급암(汲黯)과 정당시(鄭當時)와 같은 어진 이도 빈객(賓客)이 시세와 더불어 성하고 쇠했지만 하비(下邳)의 적공(翟公)이 문에다 방을 붙여 인심을 풍자한 처사는 박절함이 너무했다. 서글픈 일이다. 완당노인(阮堂老人) 쓰다. (李丙疇譯)<sup>149)</sup>

149) 정후수, 「이상적론」, p.163~p.165 참고.

去年以晩學·大雲二書 寄來, 今年又以耦耕文編 寄來. 此皆非世之常有 購之千 萬里之遠, 積有年而得之 非一時之事也. 且世之滔滔 惟權利之趨, 爲之費心費力 如此 而不以歸之權利, 乃歸之海外焦萃枯槁之人 如世之趨權利者. 太史公云 以權利合者 權利盡 而交疎, 君亦世之滔滔中一人, 其有超然自 拔於滔滔權利之外, 不以權二視我耶, 太史公之言 非耶, 孔子曰 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 松柏是貫四時而不凋者, 歲寒以前 一松柏也 歲寒以後 一松柏也. 聖人特稱之於歲寒之後 今君之於我 由前而無加焉 由後而無揖焉. 然由前之君

이와 같은 시종여일(始終如一)한 이상적(李尙迪)의 지극한 정의(情誼)의 힘이 김정희에게 《세한도(歲寒圖)》를 그리게 했던 것이다. 이상적(李尙迪)은 감음(感泣)하여 왕홍(王鴻)이 부쳐 온 공자묘(孔子廟)에 새긴 〈중용설(中庸說)〉의 탁본(拓本)을 표구해서 서찰(書札)과 함께 보냈는데, 그 서찰을 보면 두 사람의 세한지정(歲寒之情)과 교유(交遊)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그 서찰은 다음과 같다.

세한도(歲寒圖) 한 폭을 엮드려 읽으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리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이 그다지도 분수에 넘치게 추켜 올리셨습니까? 감개가 진실로 절실합니다.

(중략)

이번에 이 그림을 가지고 북경에 가서 표구하여 아는 벗들에게 두루 보이고 제영을 청할까 합니다.<sup>150)</sup>

(하략)

그리고 1844년 제 7차 여행시에는 김정희(金正喜)의 《세한도(歲寒圖)》를 지니고 가서 오찬(吳贊)의 초연(招宴)에 참석하여 내어보이고 장요손(張曜孫)을 비롯한 16명의 제찬(題贊)을 받기도 했다.<sup>151)</sup>

우선(藕船)은 또 1856년 추사(秋史)가 세상을 떠나자 ‘知己平生存手墨 素心蘭又歲寒松(知己로 평생에 手墨을 남기니, 素心蘭과 歲寒松이라)’고 하여 《세한도(歲寒圖)》와 소심란을 받은 것을 기록에 남겼다.<sup>152)</sup>

---

無可稱 由後之君 亦可見稱於聖人也耶. 聖人之特稱 非徒爲後凋之貞操勁節而已, 亦有所感發於歲寒之時者也. 烏乎, 西京淳厚之世 汲·鄭之賢 賓客與之盛衰, 如下邳榜門 迫切之極矣. 非夫. 阮堂老人書.

150) 정후수, 「이상적시문학연구」, p.58.

歲圖一 伏而讀之 不覺涕淚交迸 何基推揖途分而感慨之真切也. … 此次 携此圖 入燕 付之裝手 試使知舊瀏覽 仍屬題詠 …

151) 이영숙, 전개논문, p.11.

152) 김진생, 전개논문, p.15.

### (3) 추사(秋史)와 우선(藕船)의 왕래 내용

이상적(李尙迪)은 정지상(鄭知常)<sup>153</sup>을 존경하는 추사(秋史)의 성향까지 알고 있었음을 다음 글에서 짐작할 수 있다.

<溟上<sup>154</sup>雜詩><sup>155</sup> (8首) 중 (二)

畫船新墨墨生香      새 먹으로 배를 그리니, 먹에서 향내 나고,

楚尾吳頭歌吹長<sup>156</sup>      楚尾吳頭 豫章 땅에 노래 가락 길도다.

游子東風添別淚      游子는 봄바람에 이별의 눈물을 더하니,

綠波愁煞鄭知常      綠波는 鄭知常을 슬퍼하는구나.

(金秋史學士於官舫. 扁以歌吹橫長. 又錄鄭知常諸人詩其旁.)

(金秋史學士는 官舫에다 ‘歌吹橫長’이라는 扁額을 걸고, 또 그 곁에 鄭知常 등 詩人의 詩를 記錄하였다.)

다음은 입춘 다음 날, 김추사학사(金秋史學士)를 방문함에 지은 시이다.

<立春後一日 龍湖訪金秋史學士><sup>157</sup>

입춘 다음 날, 용호로 김추사학사를 방문하여

古郭朝日微      옛 성곽에 아침해가 희미하고,

153) 정지상(鄭知常, ?~1135)은 고려 인종 때 문신으로 초명은 지원(之元), 호는 남호(南湖), 1112년에(예종 7년)에 급제하여 벼슬은 정언(正言), 사간(司諫)을 지내고, 인종 때 기거주(起居注)에 이르렀다. 특히 시(詩)에 뛰어나 고려 12시인 중의 한 사람으로 꼽혔으며 왕명에 따라 곽염(郭輿, 東山居士)의 <산재기(山齋記)>를 지었고 노장철학을 숭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4) 溟上(패상)은 대동강 가를 일컫는다.

155) 李尙迪, 恩誦堂集 詩卷一, p.172. <溟上雜詩>

156) 楚尾吳頭(초미우두)는 楚와 吳의 중간에 해당하는 땅. 즉, 豫章을 말한다. 지금의 江西省南昌縣. [朱熹, 鉛山立春詩] 雪擁山腰洞口, 春迴楚尾吳頭.

157) 李尙迪, 『恩誦堂集』 詩卷一, p.173. <立春後一日 龍湖訪金秋史學士>

曠野霜雪合	텅 빈들에 서리와 눈이 얼어붙었구나.
窮陰慘不舒	다한 陰氣는 슬프게도 펴지 못하고,
是時逼殘臘	때는 설달 그믐이 얼마 남지 않았네.
行尋沙術去	沙術이 어드멘고 찾아서 가니,
亂石冰錯雜	亂石은 얼음과 錯雜하게 섞여 있네.
空江冷射眸	공허한 강은 차갑게 눈을 쏘니,
萬頃玻璃罨	萬頃이 玻璃로 덮혔구나.
酒旆表深村	酒旗가 깊숙이 마을 있음을 알리고,
漁舫膠遠涉	어선은 먼 나루터에 얼어붙었네.
灞橋訪梅花 <sup>158)</sup>	灞橋에 매화를 찾아가니,
詩人如可接	시인이 맞아주는 것과 같네.
寥寥王子猷 <sup>159)</sup>	寥寥하구나 王子猷여!
謾迴剡溪檝	부질없이 剡溪에서 작은 배를 되돌리다니.
睽彼歲寒枝	저기 歲寒에도 푸른 나무 가지를 보라!
風鵲繞三匝	바람 속에 까치가 세 바퀴 도는구나.

여기서도 이상적과 김정희의 세한의 정을 느낄 수 있다.

다음 글에서는 추사에 대한 지극한 공경심과 자신의 음다생활이 나타나 있다.

158) 灞橋(과교)는 陝西省 長安의 동쪽 灞水에 걸린 다리이다. 送別時, 이 다리에 이르러 柳枝(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送別의 뜻을 나타냈다. 一名 銷魂橋. 霸橋「灞橋之詩思」라는 말이 있다. 詩를 짓기에 絶好의 장소를 말한다. [全唐詩話, 五, 鄭繁] 相國繁善詩, 云云, 或曰, 相國近爲新詩否, 對曰, 詩思在灞橋風雪中驢子上, 此何以得之, 蓋言平生苦心也.

159) 王子猷(왕자유)는 王徽之를 말하는데, “子猷尋戴”라는 故事가 있다. 晋나라 王徽之(字는 子猷)가 눈이 내린 뒤 달밤에 혼자 술을 마시고 左思의 招隱詩를 읊고 있다가, 문득 隱者인 戴逵(字는 明道)를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나서 곧 작은 배로 逵의 門前까지 갔으나 결국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돌아왔다. 사람이 그 이유를 물으니, “興이 나서 갔다가 興이 식어서 돌아왔을 뿐, 꼭 그 집에 들어갈 필요는 없었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晋書, 王徽之傳]

<謝金秋史閣學贈蘭啓><sup>160)</sup>

김추사 각학이 묵란 주신 것을 감사하는 글

琳琅<sup>161)</sup>과 金薤<sup>162)</sup>는 저번에 門下에 갔을 때에 나누어주신 ‘奇字’의 시이며, 露蕙와 風蘭은 또 空谷에서 素心을 의탁하심을 보았습니다. 春風이 방에 들어와서 王者의 香氣<sup>163)</sup>를 맡는 것 같고, 秋思가 가슴에 넘치니 騷人<sup>164)</sup>이 비껴어 매어 몸에 찰만합니다. 성긴 꽃은 꽃봉오리를 터트렸으나 아직 다 피지는 않았고, 綠葉은 뻗었으나 烟霞의 처음이니, 대개 큰 바다에 노니시는 높은 정취이십니다. 臨池하여 글씨공부를 하는 餘暇에, 鷗波의 逸興에 노닐고, 인젠가는 난초를 길러보려고 진실로 가슴속에 成竹<sup>165)</sup>하고 腕底에 꽃다움을 심을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靈芝는 빼어나나, 臭味를 따지고, 介石<sup>166)</sup>은 곧아서 交盟을 證據합니다. 絹素를 펴보니, 蘅荃같은 香草도 빛을 잃고, 鴉又是 挑去하여 蓬篚에 빛났습니다. 尙迪(自稱)은 病으로 呻吟하며 餐菊하는 懷抱를 쓰고 있으니, 一榻에는 茶烟이고 半牕에는 芭蕉와 白雪입니다. 靑菱처럼 顛顛한 모습을 비취보니, 公門桃李의 노래가 衰殘하

160) 李尙迪, 『恩誦堂集』 文券二, p.218. <謝金秋史閣學贈蘭啓>

琳琅金薤. 曩承頒奇字於及門. 露蕙風蘭. 又見託素心於空谷. 春風入室. 如聞王者之香. 秋思盈襟. 堪結騷人之佩. 疎花吐而晴未. 綠葉舒而烟初. 蓋以戲鴻海之高情. 臨池有暇. 鷗波之逸興. 滋畹幾年. 信成竹於胸中. 思樹芳於腕底. 靈芝秀而論臭味. 介石貞而證交盟. 絹素披來. 蘅荃失色. 鴉又挑去. 蓬篚生輝. 尙迪吟病采薪. 寫懷餐菊. 茶烟一榻. 蕉雪半牕. 照罷靑菱. 顛顛公門. 桃李歌殘. 紅豆低徊. 秋水蒹葭. 豈期朽木不捐. 瑤華忽墜. 湘毫流其清韻. 翠墨扇基幽芬. 名冠群芳. 播宿譽於菀林千古. 羞伍衆草. 起新嘆於琴操一時.

161) 琳琅(임랑)은 珠玉의 이름이다. 아름다운 詩文을 比喻한다.

162) 金薤(금혜)는 書體의 이름으로 金錯. 「金薤琳琅」은 他人의 文字를 美稱하는 말이다. [書言故事]에 「稱人文字, 金薤琳琅之篇」이라고 있다.

163) 王者之香(왕자지향)은 蘭草의 異名이다.

164) 騷人(소인)은 楚나라 屈原이 離騷를 지었기 때문에, 屈原·宋玉과 같은 一派의 文士를 말한다. 널리 詩人을 말하기도 한다.

165) 成竹(성죽)은 실행하기 전에 미리 마음속에 세우는 計劃을 일컫는다. 成算. 대나무를 그릴 때, 먼저 完成된 대나무 그림을 가슴 속에 그리고 나서 然後에 붓을 대는 것에서 온 말이다. [蘇軾, 筮籥谷偃竹記] 畫竹, 必先得成竹於胸中, 執筆熟視, 乃見其所欲畫者, 急起從之, 振筆直遂, 以追其所見, 如兔起鶻落, 少縱則逝矣.

166) 介石(개석)은 돌처럼 굳은 節介를 뜻한다.

고, 紅豆의 低徊함이요, 가을 물가의 蒹葭와 같으니, 어찌 썩은 나무가 떨어져 죽지 않겠습니까? 瑤華가 문득 떨어지니, 湘毫는 그 淸韻을 흘려보내고, 푸른 먹빛은 그 그윽한 향기를 부채질하니, 이름은 群芳 가운데서 으뜸이라, 오래된 名譽를 菝林千古에 퍼트리고, 衆草와 같은 隊列에 서기를 부끄러워합니다. 한 때 거문고 가락으로 새로운 감탄을 일으킵니다.

추사 김정희는 규장각대제(奎章閣待制)를 지냈기 때문에 각학(閣學)이라고 부른 것이다.

《은송당집(恩誦堂集)》의 첫머리의 <讀書><sup>167)</sup>에서 '正坐讀經史'처럼 이상적(李尙迪)의 문학수업은 경사(經史)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그의 가계(家系)가 《시경(詩經)》을 작시(作詩)의 본보기로 삼았음은 <曾祖考 贈參判公 手書詩經帖後序><sup>168)</sup>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시경을 본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20여년 뒤에 쓴 <一經堂銘 并序>에서도 계속 되었다.

<一經堂銘 并序><sup>169)</sup>

일경당명 서문을 병기함.

請金秋史閣學隸書一經堂 顏之門楣 晨夕自傲 永詒來後

金秋史 閣學에게 「一經堂」이라는 隸書를 청하여 門楣에 걸어놓고 朝夕으로 스스로 삼가며 後來者에게 남겨주는 것이다.

그의 증조부가 《시경(詩經)》 한 부를 손수 베껴 가보로 전하였는데 그의 아버지는 이상적의 시공부 과제로 삼았다. 그 또한 대대로 《시경(詩經)》을 가학(家學)으로 삼아 위의 글을 대들보에 걸어두고 매일 경계하고자 김정희각학(金正

167) 李尙迪, 『恩誦堂集』 詩卷一, p.170. <讀書>

168) 李尙迪, 『恩誦堂集』 文券一, p.212. 惟我皇曾考 贈參判公… 讀過風雅 若承訓於趨庭 傳到雲祁…

169) 李尙迪, 『恩誦堂集』 文券二, p.223. <一經堂銘 并序>

喜閣學)에게 예서(隸書)로 ‘일경당(一經堂)’이라 써주기를 청하였던 것이다.

다음의 시에서는 우선과 추사의 학문적 교유를 볼 수 있다.

<肅愼祭歌><sup>170)</sup>

(전 략)

阮堂夫子北海邊	阮堂 선생님은 北海의 변두리에서
訪古窮搜土城土	古跡을 찾아 토성의 흙을 搜索하셨네.
土城乃是挹婁墟	토성은 곧 이것이 挹婁의 옛터이니
得此還堪地志補	이것을 얻어 도리어 地誌를 보완할 만 하네.

우선(藕船)은 추사(秋史)를 학자로서 시(詩), 천문(天文), 지지(地志), 금석학(金石學) 등 다방면에 걸쳐 업적이 많았음을 <奉輓秋史金侍郎><sup>171)</sup>에서도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평소 사제간의 학문적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다음의 시에서 이상적인 당시의 다인들이 즐겨 사용한 글귀인 ‘다반향초(茶半香初)’와 비슷한 ‘다반향초(茶畔香初)’라는 글귀를 사용했다.

<秋懷雜詩><sup>172)</sup> (8首) 중 (二)

古木清谿繞短籬	고목과 맑은 시내, 단리(短籬, 짧은 울타리)를 감아돌며
邨深門巷自逶迤	마을이 깊숙하니 門巷은 질로 구불구불하네.
尋詩茶畔香初候	茶畔香初인 때에 시구를 찾고
款客花開酒熟時	꽃피고 술 익을 때에 오는 손님을 기뻐하네.

(후 략)

김정희(金正喜)는 ‘靜坐處茶半香初 妙用時水流花開(고요히 앉았노라면 차가 한

170) 李尙迪, 『恩誦堂集』 續集 詩卷一, p.252. <肅愼祭歌>

171) 李尙迪, 『恩誦堂集』 續集 詩卷三, p.266. <奉輓秋史金侍郎>

172) 李尙迪, 『恩誦堂集』 續集 詩卷一, p.252. <秋懷雜詩> 8首

창 익어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듯하고 신묘한 작용이 일어날 때는 물이 흐르고 꽃이 열리는 듯하네)<sup>173)</sup>라는 글을 남겼다. 홍현주(洪顯周)의 글에서도 ‘午夢初醒 茶半熟 (낮잠에서 깨어나니 차가 익었더라)’, ‘爐中茶半熟 風濤聽海松 (화로에 차가 익으니 바람 물결 소리가 해송의 소리로 들리네)’라는 글귀를 볼 수 있는데 이상적이 쓴 ‘다반향초(茶畔香初)’와는 ‘반(畔)’자와 ‘반(半)’자가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반(畔)’은 가(변두리) 반 즉, ‘경계’의 뜻이다. 따라서 이상적이 쓴 ‘다반향초(茶畔香初)’는 ‘차가 끓는 변두리에 향기가 나기 시작하고’의 뜻이다. 한편 신위(申緯)의 글에서도 ‘香初茶半雨瀟瀟 (향기가 나기 시작하고 차가 한창 끓으니 비가 오는 듯하구나)’라는 글귀를 볼 수 있다. ‘향초(香初)’의 ‘향(香)’은 ‘다(茶)’와 항상 붙어 다니는 차의 향기라는 뜻을 알 수 있다. <sup>174)</sup>

이상적은 이들과 교류하면서 그 영향을 받아 ‘다반향초(茶畔香初)’라는 글귀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 3. 海居 洪顯周와의 交遊

해거(海居) 홍현주(洪顯周, 1753~1823)의 아버지는 홍인모(洪仁謨), 어머니는 다인(茶人)이자 200여편에 가까운 시를 남긴 영수합서씨(令壽閣徐氏)이다. 성리학에 정통한 문장가 홍석주(洪奭周)는 홍현주(洪顯周)의 맏형이고 홍현주(洪顯周)는 셋째 아들이다.

홍현주는 정조(正祖)의 딸 숙선옹주(淑善翁主)와 결혼하여 영에 봉해지고 순조(純祖) 15년(1815년)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가 되었다.<sup>175)</sup>

173) 정영선, 『한국 茶文化』, p.252.

174) 정영선, 『다도철학』, p.39~41 참고.

175) <http://seoul600.visitseoul.net/seoul-history/>

해거의 어머니 서씨는 여자들에게는 독서도 허용치 않았던 당시의 경직된 사회 여건으로 볼 때 선구자적 인품이었으며, 차를 무척 즐겼고 거문고도 즐겨 탔다. 서씨는 자녀들에게 검소함을 엄격하게 가르치고, 때로는 온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술과 차를 즐기며 시 짓는 자리를 마련하는 무척 관대한 어머니였다.<sup>176)</sup> 이런 어머니의 영향으로 해거(海居)는 자연스럽게 차(茶)와 시문(詩文)을 접하였으리라 짐작된다.

홍현주는 일반인이 접하기 어려운 궁중의 각종 의례관련 행사에도 직접 참여하고 연경에 다녀왔던 형님과 신위, 이상적을 통해서 풍부한 기행담과 청나라의 여러 문물과 제도에 관한 내용까지 습득하였고, 당시 청나라의 대표적인 석학들과도 서신 왕래가 있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홍현주의 음다생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sup>177)</sup>

또 해거(海居)는 초의(草衣)에게 다도(茶道)를 알고자 하여 『동다송(東茶頌)』을 집필하는 동기를 만들었으며, 그의 시집에는 초의(草衣)가 발문을 쓰기도 하였다. 이상적과는 다음의 시에서 그 교유를 살펴볼 수 있다.

<洪海居駙馬見邀 與東樊共賦><sup>178)</sup> (2首)

홍해거부마의 초대를 받았다. 동번과 함께 시를 지었다.

(一)

詩派千秋迥杜陵<sup>179)</sup> 詩派는 천년을 거슬러 올라 杜陵派인데,

176) 정영선, 『한국 茶文化』, p.241~242 참고.

177) 박윤수, 「洪顯周의 음다생활 고찰」, 『茶文化研究誌』 제12권, 한국 다문화 연구소, 2003, p.37.

178) 李尙迪, 『恩誦堂集』 詩卷三, p.183. <洪海居駙馬見邀. 與東樊共賦.>

179) 杜陵(두릉)은 漢宣帝의 陵名으로 그 동쪽은 杜曲이며, 陵의 서쪽은 杜甫의 舊宅이다. 그래서 杜甫는 스스로 杜陵布衣·小陵野老라는 號를 썼다. 杜陵派란, 杜甫의 詩風을

緒論特地思騰騰<sup>180</sup>) 緒論하니 특별히 생각이騰騰하네.  
 吟餘歲暮行初雪 읊조리다 세모에 첫눈을 밟고 가니,  
 驢背天昏趁上燈 나귀등에 날은 어두워 등불을 밝힐 때로다.  
 志士可憐歌白石 志士는 可憐하게 白石을 노래하니,  
 酒人何事戒春冰<sup>181</sup>) 酒人은 어이하어 春氷을 경계하는가?  
 (時禁酒令嚴) (당시 禁酒令이 嚴格하였다.)  
 後生終是前賢畏 後生은 줄곧 前賢을 두려워하니,  
 八斗量才僅一升 人斗과의 주량에 겨우 一升만 마십니다.

(二)

看君詞藻好憑陵 그대의 詞藻를 보니 憑陵을 좋아하여  
 滿目珠光劍氣騰 눈에 가득히 구슬 빛이요 劍氣가 騰騰하네.  
 茶事小闌如聽雨 茶事하는 작은 난간에 빗소리 들리는 듯하고  
 書聲深屋不離燈 글읽는 소리 깊은 밤에는 등불이 떠나지 않네.  
 夜殘強半餘斜月 밤은 반 넘어 지나, 비긴 달이 남았고,  
 天冷無多始結氷 날씨 추우니 머지 않아 얼음이 얼기 시작하겠네.  
 禁嚮風流新社約 禁嚮처럼 좋은 풍류로 새로 詩社를 맹약하니,  
 怕輸墨水飲三升 글씨 못 써 墨水을 三升이나 마실 것이 두렵네.

조선조 후기에는 실사구시(實事求是)라는 현실적 가치관이 대두되면서 신분제도(身分制度)와 계급의식(階級意識)이 쇠미(衰微)해져 문학 활동 자체에도 큰 변모를 가져오게 되었다. 사대부(士大夫)들만의 모임이었던 시사(詩社)나 문집편찬(文集編纂) 등이 서류(庶類)는 물론, 중인들에게서도 유행하는가 하면 공동체적 문학활동까지도 속출하게 되었는데 여기서도 사대부인 홍해거(洪海居)와 이상적(李尙迪) 등의 인물들이 시사(詩社)를 결의한 것을 볼 수 있다. 위에서 시를 짓는 자리에는 차가 있었고 시모임인 시사(詩社)는 곧 다회(茶會)의 자리임을 알 수

繼承하였다는 뜻이다.

180) 特地(특지)는 특히, 特別하다는 뜻이다. [杜甫, 陪柏中丞觀宴將士詩] 幾時來翠節, 特地引紅妝.

181) 春氷(춘빙)은 봄의 얼음을 말하고 위험한 것의 比喻이다. 履春氷.

있다.

이상적의 다른 글에서도 밤중에 지우들이 모여 다회겸 시회를 연 기록이 있다.<sup>182)</sup>

한편 홍현주의 <疊前韻寄藕船乞茶 (앞의 운자를 거듭해서 우선에게 보내어 차를 빌다)><sup>183)</sup>라는 시에서도 우선과의 교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sup>184)</sup>

---

182) 정영선, 「차는 부처라고 한 이상적」, 『설록』 12월호, 태평양 건강사업본부, 1994, p.30.

183) 洪奭周, 『海居齋詩鈔』 二集, 卷之一. <疊前韻寄藕船乞茶>

184) 박윤수, 「洪顯周의 음다생활 고찰」, 『茶文化研究誌』 제12권, 서울: 한국 다문화 연구소, 2003, p.36.

## V. 結 論

이 논문은 우선(藕船) 이상적(李尙迪, 1803~1865)의 시문집인 《은송당집(恩誦堂集)》을 근거로 하여, 그의 시문을 읽고 전 작품에 내포되어 있는 그의 한국과 중국을 망라한 그의 문화 교류(交遊)와 다가(茶家)로서의 면모를 살펴보았다.

19세기 조선의 정치와 사회가 혼란했던 시기에 활동한 이상적(李尙迪)은 중인 출신(中人出身) 역관(譯官)으로 12차의 연행(燕行)을 하면서 청조(淸朝)에까지 시명(詩名)을 날리고 한·중 문화 교류에 교량적 역할을 하였다. 대대로 역관직을 세습했던 중인(中人)의 가계(家系)에서 출생하여 뛰어난 재능을 발휘함으로써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군수(郡守) 등의 관직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이상적(李尙迪)은 다도의 대가인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의 문하에서 추사의 학적(學的) 분위기를 수용하여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문 경향을 보였다. 청의 고증학(考證學)의 대가인 옹방강(翁方綱) 계열의 문인학자들과 교류하여 시(詩)·서(書)·화(畫) 및 금석(金石)의 고증을 익힌 우선은 김정희(金正喜)가 적소(謫所)에 있을 때 청의 귀한 서적을 보내며 극진히 위로하자, 김정희는 그의 사시상청(四時常靑)의 마음에 감동하여, 《세한도(歲寒圖)》를 그려 보내주었다.

시·서·화의 삼절로 알려져 있고 110여 편의 다시(茶詩)를 남긴 자하(紫霞) 신위(申緯)와도 서로 시(詩)로써 화답하며 교류가 있었는데, 청에 연행(燕行)시에 이상적은 그에게 서책을 구해주기도 하였고 청의 인사들에게 안부를 전하기도 하였다.

해거(海居) 홍현주(洪顯周)와는 그의 초대를 받아 화답시를 지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시사(詩社)를 함께 결의하고 다회를 연 것을 볼 수 있다.

그의 시문(詩文) 중에서 <白山茶歌 謝朴景路> 는 박경로에게 감사하는 다가(茶

歌)로서 연행(燕行)을 하면서 중국의 다양한 차(茶)를 접한 기록을 볼 수 있으며 <金小棠惠富士山茶及茶壺 皆曰本物也>에서는 일본의 녹차(綠茶)와 다호(茶壺)도 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蝶菴比部寄餉淞茶>에서는 청조인(淸朝人)이 차를 보내온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국내외의 다인들과 폭넓은 교류를 통한 그의 음다생활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적(李尙迪)은 《다경(茶經)》을 보았고 차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藕船)은 음다생활을 통해 검박한 가운데 손수 다사(茶事)를 행했으며 불교의 진리를 터득하고자 했다. 또한 그는 찻물이 끓는 소리를 '송도(松濤)', '송풍(松風)' 등으로 표현하여 심신의 조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은송당집(恩誦堂集)》에 나타난 다도 문화 관련 용어는 다음과 같다.

차명(茶名)으로는 '녹차(綠茶)', '용단승설(龍團勝雪)', '승설(勝雪)', '죽로(竹露)', '무이차(武夷茶)', '강남어차(江南御茶)', '부사산차(富士山茶)', '송차(淞茶)', '녹설아(綠雪芽)'가 있다. 그리고 차 끓일 물로는 '석천(石泉)', '설수(雪水)', '중영수(中泠水)'를 썼으며, 차 끓일 때의 용어로는 '약(瀹)', '전(煎)', '팽(烹)', '자(煮)'를 사용하였고 불은 '문화(文火)'와 '활화(活火)'를 볼 수 있으며, 탕관으로는 '다요(茶銚)', '석요(石銚)'를 사용하였고, 잔은 '완(椀)'과 '완(盃)'을 사용하였으며, 화로는 '소로(小爐)', '죽로(竹爐)'를 사용하였다. 그 밖에 다석화(茶席花)로는 '매화(梅花)', '수선화(水仙花)'를 썼으며, <白山茶歌 謝朴景路>에는 '다화도(茶話圖)'가 보인다.

그는 또 <記龍團勝雪>에서 중국 고대의 승설차에 대해 고증학적으로 상세히 기록하여 중요한 내용을 남겼다.

이상에서 국제 다문화(茶文化) 교류자로서의 자신의 다도관을 지닌 이상적(李尙迪)을 고찰해 보았다. 이상적(李尙迪)은 단순히 개인의 교유를 넘어서 한국과 중국의 다문화 중개자로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이는 이상적의 업적 가운데 큰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다가(茶家)로서의 이상적(李尙迪)과 당시의 음다풍속(飲茶風俗)과 문화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기대한다.

# 參 考 文 獻

## 1. 자료

- 민족문화추진회 편, 『韓國文集叢刊』 312집 《恩誦堂集》, 민족문화추진회, 2003  
신위, 『警修堂全藁』  
신위 저, 손팔주 편, 『신위전집』, 제 1, 2, 3, 4 집, 서울: 태학사, 1983.  
김석준 찬, 『藕船精華錄』, 규장각 소장본.  
이용백, 『海隣尺素예언』,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 2. 단행본

- 김승희, 『한국차생활총서』, 서울: (주) 서울출판, 1994.  
김명배, 『韓國의 茶詩鑑賞』, 서울: 대광문화사, 1988.  
김상현, 『韓國의 茶詩』, 서울: 민족사, 1997.  
김운학, 『韓國의 茶文化』, 서울: 이룬아침, 2004.  
민병수, 『사찰, 누정 그리고 한시』, 서울: 태학사, 2001.  
박정도, 『중국茶의 향기』, 서울: 박이정, 2001.  
석용운, 『한국茶藝』, 서울: 초의, 2000.  
유홍준, 『완당평전』 1, 서울: 학고재, 2004.  
육우 원저, 짱유화 신역, 『茶經』, 서울: 남탐산방, 2000.  
이병한, 『서울대 교수들과 함께 읽는 한시명편』 2, 서울: 민음사, 2000.  
이우성, 「실학연구서설」, 『韓國의 인간상』,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2.  
이현희, 『韓國史總論』, 서울: 일신사, 1980.  
임재택외 4명, 『선생님! 세시풍속이 뭐예요?』, 서울: 양서원, 2001.

자하 신위 저, 권경렬 편역, 『다옥에 손님오니 연기가 피어나네』, 서울: 너럭바위, 1998.

장영동, 『한국다도의 속멋』, 부산: 빛남, 1999.

정영선, 『다도철학』, 서울: 너럭바위, 1996.

정영선 역, 『동다송』, 서울: 너럭바위, 1999.

\_\_\_\_\_, 『한국茶文化』, 서울: 너럭바위, 1990.

천병식, 『韓國茶詩作家論』, 서울: 국학자료원, 1996.

포선순 지음, 심경호 옮김, 『한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이회문화사, 2001.

### 3. 논문류

김양수, 「조선 후기 역관에 대한 일연구」,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발표요지, 1983.

김진생, 「藕船 李尙迪 詩 研究」,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85.

김충제, 「藕船 李尙迪의 詩世界 研究」,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1987.

이병주, 「완당 김정희의 《세한도》 해설」,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야외 학술세미나, 1980.

이영숙, 「李尙迪 詩文學 研究」,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991.

이용희, 「李尙迪의 詩文學 研究」,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이춘희, 「藕船 李尙迪의 中國體驗 漢詩研究」,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1999.

정후수, 「李尙迪論」,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83.

\_\_\_\_\_, 「李尙迪詩文學研究」,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88.

탁효영, 「紫霞 申緯의 飲茶生活에 관한 考察」,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2003.

한원경, 「李尙迪의 詩에 나타난 現實認識과 表現特性」, 석사학위논문, 경북대  
학교 대학원, 1991.

#### 4. 정기간행물

박윤수, 「洪顯周의 음다생활 고찰」, 『茶文化研究誌』 제 12권, 한국茶文化연  
구소, 2003, p.27~p.72.

정영선, 「차는 부처라고 한 이상적」, 『설록』 12월호, 태평양 건강사업본부,  
1994, p.29~p.30.

#### 5. 인터넷 사이트

해거 홍현주: <http://seoul600.visitseoul.net/seoul-history>

(검색일: 2004. 11. 25)

淸 선종: <http://s-g.hs.kr/~htsa21c/whp-32.htm>

(검색일: 2005. 1. 7)

## ABSTRACT

### **A study of Sang Jerk Lee(李尙迪) as an international expert on Tea**

Hyun Jeong Kim

Major in Propriety and Tea-ceremony

Dept. of Culture Industry

Graduate School of Culture Industry

Sungshin Women's University

Sang Jerk Lee(李尙迪), who was an interpreter from the middle-class, had been to Yean Gyeng(燕京, the capital of China from 1636 to 1912), 12 times, where he acquired the green tea drinking culture of China through his connections with more than 100 Chinese literati. He also kept intimate relationship with local intellectuals enjoying green tea.

Sang Jerk Lee(李尙迪), who was a student of Jeong Hee Kim(金正喜), developed a close friendship with Wi Sin(申緯), Hag Yean Jeong(丁學淵) and Hyun Ju Hong(洪顯周), and he developed a deep knowledge of realist literature based on Silhak(實學), on epigraphy and on Chinese Textual Research. He played the role of mediate in order to be linked to the

continuous information network on the study and tea culture between local intellectuals and Chinese ones.

There was a record that he drank 'green tea(綠茶)', 'Yong dan sung sul(龍團勝雪)', 'Sung sul tea(勝雪茶)', 'Baek san tea(白山茶)', 'bamboo dew tea(竹露茶)', 'Mui tea(武夷茶)', 'Gang nam ah tea(江南御茶)', 'Bu sa san tea(富士山茶)', 'Song tea(淞茶)', 'Nok sul a (綠雪芽)'.

'Yong dan sung sul(龍團勝雪)', 'Sung sul tea(勝雪茶)', 'Mui tea(武夷茶)', 'Gang nam ah tea(江南御茶)', 'Song tea(淞茶)', 'Nok sul a (綠雪芽)' were Chinese tea, and 'Bu sa san tea(富士山茶)' was Japanese tea.

He got 'Nok sul a (綠雪芽)' which was kept in a white pot from Jep Am Jang Dae(蝶菴 張垚), who was Chinese and received 'Jaho(瓷壺, earthenware pot)', which was a kind of pot used for keeping tea in Japan from Seak Jun Kim(金奭準), who was his student.

Considering these facts, we can see how he took part in a wide variety of international exchanges and enjoyed diverse tea-drinking life.

We can also witness his character as a tea expert and his realistic scholarship through a record that states he read the 《Dakyong(茶經)》 and his recording on 'Yong dan sung sul(龍團勝雪)' found in old pagoda of Korea (高麗) Dynasty.

And there were records that he practiced the tea rite for Wan Mun Dal(阮文達)'s birthday, Chinese and for Jung Wan(仲遠)'s post-mortem birthday.

Let's take a look at tea dealing, 'Jung ryung water(中冷水)', and 'Sal Su(雪水)', which means water from snow and 'Suk Chyen(石泉)', which means water from rock which were used as water for boiling tea, the terminologies

such as 'Yak(瀹)', 'Jen(煎)', 'Pang(烹)' and 'Ja(煮)' were used when boiling tea, as to tea tools, 'Da Yo(茶銚)' and 'Suk Yo(石銚)' a kind of tea pan, two kinds of 'Wan'; '盃', '碗', tea cups were used and a 'small brazier(小鑪)' and a 'bamboo brazier(竹鑪)' were used.

Cranes and harps were referred to, and plum blossoms and daffodils were used to decorate seats for drinking tea.

His tea-drinking life was thrifty and philosophical, and he had a profound knowledge of Dado(茶道).

The great achievement he made was that h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intertwining Korea's tea culture with that of China's.